Entertainment p/21

줄기세포 스캔들 스크린에

metro
메트로 2014년 8월 8일 금요일 제3032호 www.metroseoul.co.kr

Sports p/23

류현진 - 최현 투타 대결

'스크린 충무공'… 국민에 큰 울림

'명량' 개봉 2주만에 천만관객 돌파 신기록 확실시
"忠은 백성을 향해야…" 리더십에 카타르시스 느껴

이순신 장군이 스크린에서 부활하고 있다. 영화 '명량'을 향한 관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개봉한 영화 '명량'(감독 김한민)이 이번 주말 1000만 영화에 오를 전망이다. 개봉 2주 만에 1000만 관객을 돌파하는 것은 한국영화 사상 전무후무한 기록이다. 위기 앞에서도 오직 백성을 생각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이 2014년 한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 최단 천만 돌파 눈앞

'명량'의 흥행 열기는 개봉 첫 날부터 뜨거웠다. 개봉일인 지난달 30일 하루 동안 68만 관객(영진위 통합전산망 기준)을 동원하며 '군도: 민란의 시대'가 세웠던 역대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경신했다. 지난 2일 토요일에는 하루 동안 122만여명을 동원해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일일 관객수 100만명을 가뿐하게 뛰어넘었다. 3일에는 125만여명의 관객을 모아 역대 최고 일일 스코어 기록을 세웠다.

흥행 속도도 지금까지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명량'은 개봉 이틀 만에 100만 관객을 넘어섰다. 역대 최단기간이다. 이후 8일째인 지난 6일 700만 명을 돌파했다. 지칠 줄 모르는 흥행 열기다. '명량'의 열기는 평일의 높은 관객 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수요일인 6일 하루 관객 수는 70만2012명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개봉 11일 만인 토요일 오후나 12일 만인 일요일 오전께 1000만 관객 돌파가 확실시 된다. 지금까지 역대 최단 기간 1000만 돌파 기록은 '괴물'(2006년)이 세운 21일이다. 한국영화 흥행 1위였던 '괴물'(1301만)을 뒤로 밀어낸 '아바타'(1362만)의 성적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 시대와 교감할 수 있는 이야기

당초 '명량'은 흥행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라는 점, 결과까지 다 알려진 과거의 전쟁을 그렸다는 점에서 신선한 재미와 감동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비슷한 시기 '군도: 민란의 시대'와 '해적: 바다로 간 산적', '해무' 등 대작들과의 경쟁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명량'이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을 거뒀다. 익숙하다고 여겼던 이순신 장군을 통해 지금 시대와 교감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를 끄집어냈기 때문이다.

'명량'의 투자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의 윤인호 홍보팀장은 "'명량'의 인기 요인은 이순신의 재발견"이라며 "세월이 흐르면서 화석화된 이순신 장군을 현실감 있게 그려내 관객들로 하여금 '우리나라에도 위대한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무엇보다도 '명량'의 힘은 영화가 그리는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있다. 극중 "무릇 장수된 자의 도리는 충(忠)을 쫓는 것이고 충은 백성을 향해야 한다"는 이순신 장군의 대사는 관객들이 '명량'에 열광하는 지점을 잘 보여준다.

국민은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 지도층에 책임감 있는 태도를 바라고 있다. 이때 백성과 나라를 지키고자 온몸을 내던진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있다는 평이다. 윤 팀장은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요즘 시대에 주관객들과 힘을 주는 영화의 정서적 울림도 중요한 흥행 요인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6면>

"윤 일병 직접사인은 구타"

군인권센터 "병원 이송시 이미 사망"

군인권센터가 7일 "윤 일병은 가해자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고, 이어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며 "가해자들에 의한 상해와 윤 일병의 사인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는 만큼 군 검찰관은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 당일인 4월6일 윤 일병은 주범 이모 병장에게 머리를 수차례 맞은 뒤 갑자기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애원했고 물을 마시러 가다가 주저앉아 오줌을 싼 후 의식을 잃었다"며 "이는 흔히 뇌진탕으로 부르는 경증 외상성 뇌손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소견으로 윤 일병의 의식 소실은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해 심정지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군 당국은 윤 일병의 사망 원인을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손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군인권센터는 또 "윤 일병이 4월 6일 가해자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다가 다음날 사망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이는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윤 일병은 연천군보건의료원 내원 당시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 즉 의학적으로 DOA라고 불리는 사망 상태였다"고 말했다.

특히 가해자들이 평소 기본인 인명구조술을 익히고 있었는데도 기도폐쇄 환자에게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구조술인 '하임리히법'은 윤 일병에게 시행하지 않은 점 등을 추가 수사해 공소장에 넣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2면으로 계속> /채신화기자 csh@metroseoul.co.kr

윤 일병 속옷까지 찢는 추행

가해자들 불법 성매매도… 軍 공소사실 누락 심각

군인권센터가 28사단 헌병대 수사기록에 기존 공소 사실 이외에도 윤 일병에 대한 가해자들의 잔혹한 가혹행위를 추가로 공개해 충격을 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7일 이(25) 병장 등 가해자들은 윤 일병의 속옷을 강제로 찢는 강제추행을 반복했으며, 윤 일병의 신용카드도 넘겨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공범 유(22) 하사는 이 병장, 하(22) 병장과 함께 불법 성매매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지만 이 같은 범죄들은 모두 공소 사실에서 빠졌다.

공범 이모(22) 상병은 헌병대 수사 과정에서 "지난 4월 6일 0시께 이 병장이 윤 일병을 폭행하면서 속옷인 런닝셔츠과 팬티를 찢으며 5차례 정도 폭행했다"며 "속옷을 찢고 갈아입히기를 반복했다"고 진술했다.

군 검찰은 지난 5일 가해자들이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도록 한 행위를 두고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했지만, 속옷을 찢은 행위는 공소 사실에 넣지 않았다.

가해자들이 윤 일병 소유의 신용카드인 '나라사랑카드'를 받았다는 사실도 새로이 드러났지만 역시 공소사실에는 빠졌다.

가해자들은 휴가를 틈타 경남 장유의 한 안마방에서 불법 성매매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병장이 "장원은 유흥업소가 발달했나"고 제안했고, 하 병장과 유 하사가 함께 만나 불법 성매매를 했다. 특히 간부인 유 하사가 50만원이 넘는 성매매 비용을 직접 지불하기까지 했지만 관련 부분은 모두 공소 사실에서 빠졌다.

한편 국방부 검찰단은 28사단 윤 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을 이번 주까지 종합해 수사 주체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재은기자 mkim@metroseoul.co.kr

블랙이글 경포해변 에어쇼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이 7일 오후 강릉시 경포해수욕장 상공에서 에어쇼를 위한 저공비행 및 디스플레이 훈련을 하고 있다. 블랙이글은 8·9일 오후 경포해수욕장 상공에서 초음속 훈련기(T-50B) 8대로 15분간 총 15가지의 아찔하고 짜릿한 디스플레이를 선보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SNS, 스타에겐 인생의 낭비?

기자 수첩

김지민 <연예스포츠부 기자>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다."

지난 2011년 알렉스 퍼거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감독이 한 말이다. 그는 정확히 "트위터를 할 시간에 차라리 책을 읽으라"고 선수들에게 주문했다. 당시 선수들의 트위터가 늘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스타 역시 예외가 아니다. 스타와 팬의 소통창구로 여겨졌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최근 논란의 근원지로 전락했다.

SNS의 짧은 문장 하나, 작은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되는 원인은 그것을 올린 스타 본인에게 있다. 지난 6월 EXO 백현과 열애사실을 인정한 소녀시대 태연은 앞서 SNS에 올렸던 사진과 글이 팬이 아닌 남자친구를 향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팬들의 질타를 받았다. 이후 태연은 약 두 달 정도 SNS 활동을 접었다가 최근 소녀시대 데뷔 7주년 기념사진을 올리며 다시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팬들은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스타가 직접 게재하지 않은 사진이나 글도 논란의 대상이 된다. 연예 활동을 잠정 중단한 여배우의 측근이라는 한 지인의 SNS에 등장하며 잘 지내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룹 활동까지 멈춘 시기에 분명 경솔한 행동이었다.

이에 일부 팬들은 소통을 포기하고 스타가 SNS를 접길 바라기도 한다. 회사에서 소속 연예인의 SNS 공식 계정을 만들어 운영하는 사례는 흔해졌다. 한 연예기획사 관계자는 "연습생 기간부터 SNS 관리를 하기도 한다"고 귀띔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 싹을 잘라내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다. 팬들의 사랑을 먹고 사는 스타는 자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팬들에게 큰 의미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행동해야 논란이 일지 않을 것이다.

선서하는 황우여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 특검 추천권 포기 세월호특별법 타결

13일 본회의 처리…18~21일 청문회 열기로

여야가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7일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1개 항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13일 본회의에서 세월호법을 포함해 단원고 3학년생들에 대한 정원외 특례입학을 허용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특별법', 올해 처음 도입하는 국정감사 분리 실시를 위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생 법안 등 주요 현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세월호 국회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특별검사 추천권과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에 대해서도 합의를 도출했다.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과 관련, 지난 6월 발효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특검 추천권을 여당이나 진상조사위에 줄 것을 요구해왔던 새정치연합이 기존 요구를 철회함으로써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특검보를 둬 업무 협조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해온 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는 18~21일 개최하기로 했다. /조현정기자 jhj@

이정현 새누리 지명직 최고위원

사무총장엔 이군현 임명

새누리당이 7일 사무총장에 3선의 이군현 의원을 임명했다. 지명직 최고위원에는 7·30 재보선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된 이정현 의원을 선임했다.

이 신임 사무총장은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되지만 김무성 대표의 2010~2011년 원내대표 시절 원내수석부대표로 호흡을 맞춰 김 대표의 측근으로도 분류된다.

핵심 친박 인사인 이 최고위원은 '호남 몫'으로 지도부에 입성했다.

2명의 지명직 최고위원 중 나머지 1명의 최고위원은 아직 공석으로 남겨뒀다. 김 대표는 "큰 변화에 도움이 되는 인사를 지명하기 위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새누리당 지도부는 7·14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김 대표, 서청원·김태호·이인제·김을동 최고위원에 지명직 이정현 최고위원이 추가됐다. /조현정기자

뉴스&뉴스

리비아 교민 철수위해 문무대왕함 파견

● 정부가 이슬람 무장단체 간 충돌이 격화하는 리비아 내 우리 교민의 철수를 지원하기 위해 청해부대 문무대왕함(4500t급)을 현지에 파견하기로 했다.

7일 국방부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 수행을 위해 파견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육참총장에 김요환 제2작전사령관 내정

●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으로 사의를 표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의 후임자로 김요환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육사 34기)이 내정됐다.

제3군사령관에는 김현집 합동참모차장(중장·육사 36기)이, 제2작전사령관에는 이순진 합동작전사령관(중장·3사 14기)이 각각 내정됐다.

오늘부터 택시 앞자리 에어백 의무화

● 8일부터 신규 등록 택시는 앞좌석에 반드시 에어백을 설치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에어백을 달지 않은 법인택시 사업자와 개인택시기사는 사업 일부 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처음처럼' 비방 '참이슬' 벌금

하이트진로 임직원 등에 2천만원 선고 · 방송사 PD 집행유예

소주 '처음처럼'을 의도적으로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경쟁상품 '참이슬'의 제조업체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는 7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하이트진로 전무 황모씨와 상무 정모씨에게 각각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팀장급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유해하다는 허위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방영한 케이블방송사 PD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김 PD는 알칼리 환원수의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근거 없는 일방적 의혹만 담아 처음처럼 제조업체인 롯데주류의 명예를 훼손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혔다"며 "다만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하이트진로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담은 방송 내용을 영업에 이용해 롯데주류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하이트진로 황 전무 등은 처음처럼의 인기에 위기를 느꼈던 중 처음처럼의 제조용수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김 PD의 프로그램이 방송되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단과 현수막 등을 제작 배포하고 인터넷에 해당 동영상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박원희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서종예 입법로비' 수사 확대

환노위 소속 의원 정치후원금까지 조사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이하 서종예)의 입법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을 비롯한 수사 대상 의원들과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의 후원금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최근 신계륜·김재윤·신학용 의원의 정치자금 회계보고서와 고액기부자 명단을 확보해 분석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은 김민성 서종예 이사장이 신계륜 의원 등 3명의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 외에도 학교명에서 '직업'을 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근로자직업능력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후원금으로 '합법적 로비'를 벌였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신계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자직업능력법 개정안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끝까지 반대했지만 지난 4월 21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진통 끝에 통과됐다.

검찰은 김 이사장이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에 학교 명칭 사용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입법 로비로 방향을 틀면서 당시 환노위 일부 의원들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후원금 로비도 병행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의원에게는 한 후원회에 개인이 최고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낼 수 있다. 연간 한도는 2000만원이다. 합법적인 후원금은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불법로비의 정황 증거로 쓸 수 있다.

/김민준기자 [illegible]

떠나는 이성한 경찰청장 사의를 표명한 이성한 경찰청장이 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가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이 청장은 회의에서 "지휘부가 바뀌는 시기에 흔들리지 말고 민생 치안 확립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대법 "가혹행위 못견뎌 자살… 국가유공자"

윤 일병 사망 사건'으로 전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병사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2010년 사망한 민모 이병의 유족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스무살 되던 2010년 육군에 입대한 민 이병은 자대 배치를 받은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선임병들의 암기 강요와 욕설, 질책으로 인한 우울증이 원인이었다. 민 이병은 자대에서 실시한 인성검사에서 정서적 불안 상태가 포착됐으나 중대장 등 간부들로부터 아무런 배려도 받지 못했다. 전입 당시 형식적으로 진행된 면담 한 차례가 전부였다.

그러나 민 이병 사망 후 그를 괴롭힌 선임병들은 영창 15일, 휴가제한 5일 등의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민 이병을 방치한 간부들도 근신, 견책, 감봉 등 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유족은 관할 보훈청이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은 "고인이 선임병들 탓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우울증이 생겼고, 간부들의 관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증세가 더욱 악화해 자살했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김지훈기자

현장검증 마친 포천 빌라 사건 피의자 7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한 빌라에서 포천 빌라 살인 사건 피의자 이모(50) 여씨가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연합뉴스

군인범죄 작년 7530건 5년새 최다

지난해 군인범죄가 5년 새 최다인 7500여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은 7일 지난해 군검찰에서 다룬 군인 관련 사건은 7530건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2012년 6946건보다 8.4% 증가한 것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많았다.

특히 군인범죄 70%가 군 특수성과 관련이 없는 폭행, 성범죄 등 일반 형사사건이어서 이런 사건들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신분별로는 일반 병사가 연루된 사건이 61.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사관 25.3%, 장교 9.6% 순이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음주운전이나 도로교통법위반 같은 교통범죄가 1664건으로 가장 많았다. 폭행이나 상해 같은 폭력범죄가 1644건으로 뒤를 이었다. 성폭력이나 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성 관련 사건도 543건에 달했다. 사기·공갈이 542건, 절도·강도가 524건, 횡령·배임 105건이었다.

/[illegible]기자

'포천빌라' 피의자 차분한 살인 재연

현장검증서 일부 주민 욕설

'포천 빌라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7일 오전 9시 30분부터 비공개로 현장 검증했다.

신북면의 한 빌라 2층에서 50분가량 진행된 현장검증에서 피의자 이(50·여)씨는 남편 박(51)씨의 시신을 고무통으로 옮기고 내연남이자 옛 직장동료인 A(49)씨를 살해하는 과정 등을 재연했다. 이를 지켜보던 일부 주민은 흥분해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이씨는 "자신의 결별 선언에 격분한 내연남과 다투다 범행했다"고 진술했지만, 수면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계획범죄 여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계획된 살인은 보통 동기 살인보다 가중 처벌된다.

일각에서는 10년간 박씨와 A씨의 시신을 숨겨둔 고무통을 집안에 뒀다는 점을 들어 이씨가 '버리지 못하는 증세'로 알려진 '저장 강박증(호딩 hoarding)'을 앓고 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6일 범죄심리행동 분석가인 프로파일러가 면담한 결과 이씨는 지적능력·중신장애가 있지 않으며 감정표현도 일반인과 비교해 좋은 편이라고 밝혔다.

/김연[illegible]기자

세월호 수색어선 침몰 선원 11명은 전원 구조

세월호 사고 해역에서 실종자 등 야간 수색하던 어선이 대형 유조선과 충돌해 침몰했으나 탑승한 선원들은 사망자 없이 모두 구조됐다.

7일 0시 32분께 전남 진도군 조도면 맹골도 남서쪽 7km 지점에서 120t급 어선과 4000t급 유조선이 충돌했다. 사고가 난 곳은 세월호가 침몰한 해역에서 서쪽으로 19km 떨어진 지점이다.

사고 어선은 충돌 후 침몰했으며 탑승한 선원 11명은 세월호 야간 수색을 위해 인근에 대기한 해경에 의해 전원 구조됐다. 구조된 선원 가운데 1명은 충돌 과정에서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유조선은 큰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다혜기자 [illegible]

도심 한복판 캠핑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예술가의 집 앞마당에서 마로니에 여름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도심한복판 아스팔트위 캠핑'에서 같은 텐트들이 설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비정규직 교통·휴가비도 안줘

금융·병원 등 차별 여전…60건 적발 6억여원 지급 조치

금융 보험 병원 등 비정규직을 나수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정규직과의 차별적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기간제 등 비정규직을 많이 채용한 사업장 341곳을 상대로 근로 감독을 벌인 결과 48곳에서 60건의 차별 사례를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적발된 48개 사업장은 교통비·효도 휴가비 상여금 등을 비정규직에게 차등 지급하거나 각종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는 임금·상여금·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38개 사업장에 대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516명에게 차별금품 6억5800만원을 추가 지급하도록 했다.

차별금품은 임금(78명·1억2041만원), 상여금·성과보상금·각종수당(137명·4억315만원), 교통비·피복비 경조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303명·1억3522만원) 등이다.

고용부는 약정휴가, 휴직수당, 건강검진 지원 등과 관련해 차별적 내용이 담긴 취업규칙이 있는 사업장 11곳에 대해서도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보고토록 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이 시정지시 요구 등 행정지도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 이런 사실을 통보한다.

노동위는 직권 판단 절차를 거쳐 차별적 처우가 있었다고 확인되는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은 1억원의 과태료를 문다.

/채다인기자 vdh@metroseoul.co.kr

'미드' 보며 필로폰 제조 독학

3억원대 제조 일당 검거

유명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마약 제조법에 따라 필로폰을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김모(30) 쌍둥이 형제와 제조책 박모(33)씨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 100g(3억3000만원 상당)을 만들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3만여 명이 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김씨 형제는 초등학교 선배인 박씨에게 "필로폰을 만들어 팔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범행을 권유했다. 박씨는 미국 드라마 '브레이킹 배드(Breaking Bad)'와 미국 인터넷 사이트 등을 보고 필로폰 제조법을 독학으로 터득해 10회에 걸쳐 필로폰 100g을 만들었다.

경찰은 "아파트에서 미국 드라마를 보고 독학으로 필로폰을 만든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사람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준기자

여름 주수 7일 부산 김서구 죽동동에서 농민 김경영씨가 부산지역 첫 벼베기를 한 뒤 베어낸 벼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번 벼베기는 지난해보다 1일 빠르고 4월 21일 모두벼를 심은 지 109일만의 수확이다. /연합뉴스

은행창구 '가짜 신분증' 잡아낸다

앞으로 일선 은행창구에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진짜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안전행정부는 8일부터 금융기관용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금융 거래를 위한 본인 확인 때 신분증 발급기관별로 제공하는 개별 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문자 상으로만 확인할 수 있어 신분증 위·변조를 잡아내기 어려웠다. 그러나 새 시스템을 이용하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6개 신분증의 진위를 통합해 파악하고 신분증 사진도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되며, 운전면허증 등 나머지 5개 신분증은 법적 근거가 생기는 대로 확대할 계획이다. /윤다혜기자

승차권에서 느껴지는 격세지감

(왼쪽)1974년 종이승차권, 2014년 일회용 교통카드. /서울메트로 제공

지하철 개통 40년 "그땐 그랬지" 3

1974년 8월 15일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됐고 올해로써 4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40년동안 시민들과 함께 발전해온 지하철은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승차권도 시대의 변화, 기술 등과 함께 발전하고 있다.

1970년에는 종이로 만든 에드몬슨식 승차권을 이용했으며 현재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일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1974년 당시 운임은 30원으로 현재 일반용 교통카드 기준 운임 1150원(보증금 별도)의 38분의 1 수준 밖에 안된다. /윤다혜기자

3550원짜리 법원우표 발행
민사신청 송달료 현장으로

서울서부지법은 10월부터 법원 송달 전용으로 3550원짜리 우표가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 우표는 대한제국 국새인 '황제지보'를 도안으로 제작되며 총 180만장이 발행돼 10월부터 법원과 그 인근 우체국 90곳에서 판매된다. 3550원은 역대 발행 우표 가운데 최고액이다.

일반 민사소송은 송달료를 은행에 현금으로 내지만, 민사신청 민사집행 등기 등 일정 업무에 대해서는 송달료를 우표로 내게 돼 있다.

지금까지는 송달료 3550원을 2000원권, 1000원권, 500원권 등을 섞어 4장의 우표를 서류에 붙여야 했는데, 이에 대한 불편이 지적돼 서부지법의 요청으로 이번 우표 발행이 결정됐다. /김민준기자

'철피아' 의혹 조현룡 의원 영장 청구

뭉칫돈 발견 박상은 소환

'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철도부품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조 의원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사전제작형 콘크리트 궤도(PST) 제작업체 삼표이앤씨로부터 모두 1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도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을 오전 8시 39분께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자신의 특별보좌관 월급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 비서의 주장 등에 대해 사실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6월12일 박 의원의 운전기사 A(38)씨로부터 박 의원의 에쿠스 차량에서 가져 온 현금 3000만원과 정치 자료 등이 담긴 가방을 건네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장남 집 압수수색 과정에서 다온 현금 뭉칫돈 6억원에 대해서도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출처를 확인해왔다.

검찰은 6억3000만원 가운데 일부의 출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준기자 mkhe@

산업인력공단 첫 화상회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7일 오전 10시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혁신도시로 이전한 본부와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에 위치한 서울지역본부를 연결하는 첫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화상회의에서는 일학습병행제 확산 등 국정과제의 서울 지역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공유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공단은 지난 12월 내부 업무망에 접속이 가능한 모바일 오피스 앱을 개발했다. 수도권에서 교통시설 접근성이 우수한 서울 남부지사에 스마트 워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화상회의 시스템 활용으로 스마트 워크 시스템이 완성됐으며 울산과 서울의 물리적인 거리에 따른 업무 비효율을 해소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global

metro Russia

В Пушкинских Горах приручили лося

metro Colombia

Comenzó la fiesta de cumpleaños para Bogotá

보고타市 건립 476년 축제

최근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서 시 건립 476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축제가 열렸다. 산타마리아 광장에서 볼리바르 광장까지 펼쳐진 퍼레이드에는 각종 분장을 한 사람들이 참가해 보고타의 유구한 역사를 알렸다. 보고타는 스페인 식민 시절을 거치며 남미의 중심 도시로 발전했다. 거주 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약 780만 명이다.

metro France

Conflit à Gaza : les appels d'Israël se multiplient

이스라엘 제품 '보이콧' 운동 확산

프랑스에서 이스라엘 제품을 보이콧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시작된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인터넷상에선 이스라엘 제품을 거부하는 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프랑스의 경우 이러한 보이콧 운동이 법에 위배될 가능성도 없다. 지난 7월 31일엔 한 국회의원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제품 거부를 선언한 뒤 법원에 소환된 바 있다.

metro Brazil

성형수술 세계 1위 가슴확대 가장 인기 남성 시술도 급증

브라질이 성형수술 부문에서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로 등극했다.

성형수술 국제협회(Isaps)에 따르면 브라질은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다. 2013년 에만 총 149만 건의 성형수술을 해 미국(145만 건)과 멕시코(48만 6000건)를 앞질렀다. 비율로 본다면 전 세계 성형수술의 13%가 브라질에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보톡스나 시술과 같이 비(非)수술 성격 부문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390만 건으로 1위를 달리고 있다. 브라질은 210만 건이다.

또한 최근 미국에서 가슴확대 수술의 수요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수술 부위로 보면 가슴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다.

또한 브라질에서는 작년에만 총 7만7200건의 코 성형수술을 해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복부 성형수술 부문에서도 12만9000건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는 전 세계 복부 성형의 15%에 해당한다.

해당 통계를 성별 기준으로 본다면 역시 여성이 990만 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수술을 통해 아버지가를 원하는 남성도 16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성형수술 전문의인 안드레 마투스는 "브라질 사람들은 성형수술에 중독돼 있다"며 "자신의 가슴이 너무 크다며 축소 수술을 요구한 여성도 있었으나 실상은 별로 그렇지 않았다"며 현실을 꼬집었다.

/정리=손동완 인턴기자

식탁서 밥 먹는 엘크 보셨나요?

동물학자, 생태 공원 설립 다친 동물 치료…"자식처럼 돌보죠"

러시아 푸쉬킨스키에 고르시에 엘크(말코손바닥사슴) 표범 늑대 곰 등 야생동물을 자식처럼 돌보고 교감하는 동물학자가 화제다.

동물학자 안드레이 고로샤포프 박사는 지난 2000년 생태 공원 '주그라드'를 설립, 아프거나 다친 동물을 구조해 치료하고 있다.

고로시포프 박사는 "주그라드에는 야생에서 구조된 어린 동물이 많다"며 "어릴 때부터 이곳에서 자란 동물은 사람을 잘 따른다"고 밝혔다.

그는 "로소시크라는 엘크는 저녁 식사 시간을 가장 좋아한다"며 "집안에 들어온 로소시크는 식탁에서 우리와 함께 밥을 먹는다"고 말했다.

고로샤포프의 아내 베로니카는 "배불리 식사를 마친 로소시크는 자연스럽게 거실 소파로 나와 남편과 매일 저녁 텔레비전을 본다"며 "황소처럼 큰 덩치만 빼면 어느 부자지간과 다름없을 정도"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그는 "어미를 잃고 심하게 다친 로소시크를 어릴 때부터 돌봐왔다"며 "가족과 다름없는 로소시크를 소파에서 쫓아낼 수 없다"고 말하며 웃었다.

주그라드에는 로소시크 이외에도 불리칸 '릴라'와 늑대 '이르마' 등 야생에서 구조된 동물이 많다.

자원봉사자 율리아 고보로바는 "바박르(bull)에 달하는 주그라드를 누비고 다니는 릴라는 이곳의 터줏대감이며 이르마는 강아지보다 더 애교가 많은 늑대"라고 말했다. 고보로바는 "릴라는 맹수의 공격을 받고 근처 호수에서 발견됐고 이르마는 사냥꾼에게 학대당했지만 무사히 구조됐다"며 "지금은 모두 건강하다"고 했다. 이어 "이르마는 나를 엄마처럼 생각한다"며 "이르마와 함께 산책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다"고 덧붙였다.

고로샤포프 박사는 "주그라드의 설립 목적은 병들고 아픈 동물을 치료해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것"이라며 "동물이 야생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짝을 지어주거나 무리 생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훈련 하는 것"이라며 "사람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도 필요하다. 동물을 진심으로 대한다면 누구나 동물과 교감할 수 있다"며 야생동물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클로나 보브로바(메트로 러시아) 기자 · 정리=조선미기자

market index <7일>

코스피 2054.51 (-6.22)
코스닥 547.11 (-1.32)
금리 2.53 (-0.01)
환율 1031.80 (+4.10)

포도데이 행사 즐거워요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포도생산자협의회는 7일 오전 서울 청계광장에서 포도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포도데이 행사를 열었다. 어린이들이 광장에 설치한 포도나무 밑에서 포도를 따며 즐거워 하고 있다. /뉴시스

직장인 가입 예·적금 25조 세금우대혜택 사라진다

내년부터 직장인이 주로 가입한 20~59세의 예·적금 25조원에 대한 세금우대 혜택이 사라진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외환·기업 등 7개 주요 은행에는 899만 계좌 24조 8000억원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이 가입돼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20세가 넘으면 누구나 10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별도의 상품이 아니라 1년 만기 예·적금에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여러 계좌로도 나눌 수 있으며, 1000만원에 대한 이자소득세(지방세 포함)가 15.4%가 아닌 9.5%로 적용된다. 세금우대가 사라지면 약 6%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세금우대종합저축 한도가 3000만원이다.

정부는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없애기로 했다. 25조원 가운데 20~59세가 가입한 금액은 내년부터 세금우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셈이다.

최근 예·적금 금리가 매우 낮은 탓에 세금우대 폐지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은 연 3% 금리를 가정하면 1인당 1만8000원(1000만원×3%×6%)이다. /유현수기자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적선동길(00)(서울 종로2가)
TEL 02)721-9800, FAX 02)730-16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무·편집인 김종학
편집제작 조인호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01
2002년 5월 24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098

은행권은 지금 영화 '명량' 바람

우리 정기예금·하나 관객수 따른 우대금리 상품
산은·CJ엔터테인먼트와 6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은행권에서도 영화 '명량'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주요 은행들은 영화 '명량' 관객수에 따라 우대금리를 주는 금융상품을 선보이거나 영화 제작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영화 '명량'은 1597년 임진왜란 6년, 단 12척의 배로 330척에 달하는 왜군의 공격에 맞서 싸운 이순신장군의 명량대첩을 그린 작품이다. 이 영화는 개봉 6일만에 관객수 500만명을 돌파해 올해 첫 1000만 관객 자리를 넘보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15일까지 '우리나라사랑 명량 정기예금'을 판매한다. 개인이면 누구나 최대 1억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우대조건 없이 연 2.7%를 제공하는 1년제 정기예금 상품이다. 광복절인 8월 15일까지 총 1000억원 한도내에서 판매한다.

판매 종료 후에는 417년전 명량에서 13척의 배로 330척의 왜군을 격퇴한 명량대첩을 기리기 위해 가입고객 중 추첨을 통해 417명에게는 영화 '명량' 예매권(1인 2매)을 제공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광복절 69주년을 기념하고, 충무공의 업적과 정신을 되새겨 어려운 경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의미에서 출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1일 계열사 임원과 함께 서울 강남에서 영화 '명량'을 관람했다. 이 회장과 임직원들은 영화 관람을 통해 '생즉필사 사즉필생'의 정신으로 민영화 완수 의지를 다진 것으로 전해졌다.

하나은행은 영화 '명량' 관객이 많을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정기예금인 '하나 Movie 정기예금(명량)'을 선보였다. 관객 수에 따라 ▲500만명 미만 연리 2.6% ▲500만~700만명 2.65% ▲700만명 이상 2.7% 등의 금리를 각각 적용해준다.

산업은행은 영화 '명량' 흥행에 덩달아 웃고 있다. 산업은행은 영화 제작 배급사 CJ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총 600억원 규모의 CJ E&M 펀드(600억원)를 조성했는데 이 가운데 300억원을 투자했다. 간접투자한 영화 '명량'이 흥행 대박을 터뜨리면서 산업은행도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김민지기자 minj@metroseoul.co.kr

삼성 '인천 아시안게임' 캠페인 삼성전자는 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퍼시픽 오리엔탈 호텔에서 '우리의 게임 우리의 자부심(Our Games Our Pride)'을 테마로 '2014 인천 아시안게임 캠페인'을 시작했다. /삼성전자 제공

팬택, 또다시 법정관리 들어가나

협력업체 3곳 가압류… 8일이 최대 고비

채권단의 워크아웃 재개 결정으로 한시름을 덜었던 팬택이 또다시 법정관리 위기에 몰리고 있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팬택은 이달 중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할 전자채권 440억원의 대금 만기를 앞두고 있다. 이 중 절반가량을 11일 협력업체에 지급해야 한다.

이미 지난달 두 차례 협력업체에 지급했어야 할 만기도래 전자채권 360억원마저 연체 중인 상황에서 신규자금 유입이 없으면 결국 다시금 무너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팬택은 지난 4일 호소문을 통해 "이통사에 즉각적인 제품 구매 및 대금 결제를 마무리 해 줄 것과 지속적으로 최소 수량 구매를 요청한다"며 "이통사의 결단이 없는 한 팬택은 어쩔 수 없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통사가 현재 재고량을 들어 단말기 추가 구매가 부담스럽다는 주장에 대해 "7월 말 현재 팬택 제품 유통재고는 결코 과다한 수준이 아니다"라며 "영업정지 기간 유통재고는 70만대 이상까지 급증했으나 지금은 50만대 이하로 개통 실적을 반영한 공급을 통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통3사는 여전히 "고객 수요가 있어야 재고를 처분할 수 있고, 통신 시장 상황도 여의치 않다"며 "현재 단말기 재고를 처분하기도 힘들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계는 결국 이통3사의 단말기 추가 구매 지원 없이는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이미 팬택 협력사 3곳에 금융권 가압류가 시작되면서 협력사들은 줄도산 위기감에 휩싸이고 있다. 협력사들은 이미 지난 6월부터 카드 정지와 이자, 원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업무를 보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렇게 협력사 한 두곳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줄도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11일이 만기라고 하지만 9, 10일이 주말이기 때문에 결국 금요일인 8일 오후까지 상황 변화가 없으면 팬택의 법정관리 신청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8일이 법정관리 선택의 마지노선인 셈이다.

팬택 협력사들도 5일 박근혜 대통령에 호소문을 발표하며 "팬택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달라"고 요청했다. 팬택 협력사협의회는 "팬택과 같은 기업을 만들려면 수조원의 자금이 필요하고 8만명의 고용창출을 하려면 수천개의 기업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550개 협력업체의 8만명의 직접종사자, 30만명의 직계가족이 길거리에 내몰리지 않도록 호소한다"고 밝혔다. /이재영기자 ljy040@

서울 전세값 연일 상승 경기 매매가 67% 비중

계속되는 전세난으로 전세가가 연일 상승하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경기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총 187만90가구 중 125만5295가구의 매매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경기 아파트의 67%에 달하는 수치다.

7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7월 마지막 주 시세 기준 서울 아파트(주상복합 포함) 평균 전세가는 3억1519만 원이다. 경기 아파트 총 187만90가구 중 서울 평균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저렴한 가구는 125만5295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 총 가구 중 67%에 해당되는 수치다.

이러한 현상은 2008년 말 금융위기로 매매시장이 침체되면서 매매가 하락이 이어진 반면 전세시장은 전세전환 현상으로 수요가 늘면서 꾸준히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고양시가 12만6020가구로 서울 평균 전세가보다 매매가 저렴한 가구가 가장 많았다. 고양시는 총 19만471가구로 경기에서 가구수가 가장 많기도 하지만 상승 및 원신흥택지지구를 비롯해 덕이·식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로 공급물량이 많아 매매가 하락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도 불구하고 서울 평균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저렴한 경기 아파트 가구수는 한동안 증가할 전망이다.

/김주희기자 kjh@

"보험, 판매부터 지급까지 보장한다"

금감원, 보험상품 상시감시체계 구축

직장인 김용준(37·가명)씨는 몇해 전 교통 사고를 당한 이후 팔과 손에 마비가 오는 느낌을 받아왔다. 김씨는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뇌경색 판정을 받고 보험사에 연락했지만 보험사로부터 "보험 상품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금 지급 대상과 기준에 맞지 않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다.

처음 가입 당시에는 모든 것을 다 해줄 것처럼 굴던 보험사의 돌변에 그는 좌절하고 말았다.

앞으로 김 씨의 사례처럼 가입한 보험 상품에 대해 지급 거부당하는 등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확연히 줄어들 전망이다.

7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피해 볼 경우를 예방코자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간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에 대한 자율성 확대 등으로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상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개별 상품을 일일이 감시하고 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데 따른 조치다.

실제 지난 3월 말 현재 보험사가 판매한 보험상품은 6259개에 달한다.

이로 인해 개별 상품에 대한 감시가 어렵고 허위·과장 또는 불충분한 설명 등으로 인한 불완전 판매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상품 판매부터 보험금 지급까지 전(全) 단계에 걸쳐 각 정별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피해 가능성을 다양한 감시지표로 조기에 감지키로 했다.

또한 문제발생 우려가 있는 상품 등을 중심으로 감독자원을 집중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보험상품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이 시스템은 ▲불완전 판매 ▲변액보험 불완전 판매 ▲상품별 손익 ▲상품별 사업비 집행 ▲상품별 유지율 ▲보험금지급 만족도 등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6개 부문 29개 감시지표로 구성됐다.

이 결과 보험회사별·상품별·채널별 분석에 따른 불완전 판매나 보험금 지급 거절 등을 즉시 포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감시지표 분석을 통해 이상 징후가 있는 보험회사 상품판매 채널에 대해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소명을 요구하고, 자체 개선 계획을 마련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는 상품 등 취약분야에 대해 감독·검사를 집중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험회사 스스로도 지표를 거울 삼아 개선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자산운용과 경영관리 등에 대한 시스템도 구축하는 등 보험회사 업무 전 분야에 대한 상시감시체계도 구축·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백아란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스마트폰으로 전세 마련 우리은행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전세자금 상담부터 대출 실행까지 가능한 '스마트폰 전세론'을 금융권 최초로 출시했다. /우리은행 제공

퀴퀴한 빨래 냄새 해결 이렇게…

찐순이 주부 경제학

후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주부들의 걱정도 더욱 깊어진다. 가득이나 더운 날씨 탓에 기운도 떨어지는데, 빨래며 집안 청소까지 집안 일은 끝도 없다. 그 중에서도 '빨래'가 주부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다.

우선 여름철에는 번거롭더라도 빨래를 자주 하는 게 좋다. 빨래를 한번에 하려고 쌓아 두면 세균이 쉽게 번식해 옷에 곰팡이가 생기고, 불쾌한 냄새까지 난다. 빨래통 역시 통풍이 잘 되는 것을 추천한다.

여기서 잠깐! 여름철 빨래 냄새를 없애는 방법이 있다. 식초와 물을 1 대 10 비율로 섞어준다. 이렇게 만든 물에 옷을 1시간 동안 담가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살균과 옷의 탈색도 방지할 수 있다.

빨래를 말리고 난 뒤 종종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는 실내 건조전용 세제를 사용하면 건조할 때 발생하는 퀴퀴한 냄새를 없앨 수 있다. 다만 옷을 자주 빨면 옷감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옷감 보호가 가능한 세탁기를 이용하는 게 좋다.

선풍기나 제습기를 이용해 빨래를 건조하는 방법도 있다. 선풍기는 빨래에서 멀리 위치하게 하고, 약한 바람으로 건조 시키는 것이 좋다.

세탁 후에는 세탁기 문을 열어 놓는다. 세탁기를 돌리고 나면 세탁조 안은 매우 습하다. 이런 상태로 오래두면 세탁조에 곰팡이가 번식하기 쉽다. 따라서 세탁이 끝나면 세탁기 안의 내부가 완전히 마르도록 건조시키는 게 중요하다. 드럼세탁기의 경우 문짝 고무패킹 사이가 잘 마르지 않기 때문에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준다.

/김민지기자

수입차 시장에 독일·디젤 돌풍 분다

중소형 폭스바겐·중형 BMW 3·대형 벤츠 S클래스 강세

올해 수입차 판매는 독일차와 디젤차의 강세가 더욱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6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낸 자료에 따르면 세그먼트별 인기 차종을 독일차가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00cc 이하 중소형급에서는 폭스바겐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폭스바겐은 골프 시리즈를 4094대나 판매했으며 제타 시리즈 2953대, 폴로 1219대, 비틀 656대의 판매고를 기록했다. 이들 차종은 총 8922대로 폭스바겐 판매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BMW의 막내인 1시리즈는 1541대가 팔려 만만치 않은 인기를 과시했다. 미니 브랜드도 인기를 모았다. SUV인 컨트리맨과 페이스맨을 제외한 미니 시리즈의 판매량은 1342대이고 이 가운데 미니 쿠퍼가 547대로 가장 많이 팔렸다.

아우디는 A3를 선보이 쏠쏠한 재미를 봤다. 7월까지 735대나 팔리며 이 시장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A클래스 463대, B클래스 257대, CLA(AMG 포함) 705대로 총 1431대를 판매했다.

중형급에서는 BMW 3시리즈가 독주하고 있다. 2306대가 팔린 320d를 비롯해 3시리즈(M3 포함)는 모두 5543대가 팔려 뜨거운 인기를 입증했다. 아우디 A4는 2762대가 팔리며 2위로 올라섰다. 반면 메르세데스 벤츠 C클래스(AMG 포함)는 2464대로 3위로 밀렸다. 그러나 최근 선보인 뉴 C클래스의 판매량이 늘고 있어 하반기 순위를 지켜볼 만하다. 이 시장의 다크호스는 인피니티 Q50이다. 7월까지 1336대가 판매되며 인피니티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경쟁이 더욱 치열한 중대형급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가 1만760대(AMG 포함)로 선두를 달렸다. BMW 5시리즈(M5 포함)가 9654대로 그 뒤를 추격했다. BMW는 520d가 단일 차종 판매에서 1위(4413대)를 지키고 있다. 아우디 A6는 7253대로 3위를 달리고 있는데 A6 2.0 TDI (3172대)의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어 올해 남은 기간 경쟁이 볼만하다. 독일차들의 독주 속에 렉서스는 ES를 2705대를 판매해 일본차의 자존심을 지켰다. 반면 재규어 XF는 930대가 판매돼 힘겹게 추격하는 모습이다.

대형급에서는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2645대, BMW 7시리즈 1173대, 아우디 A8 761대의 순으로 판매량을 나타내고 있다. 포르쉐 파나메라는 363대, 재규어 XJ는 221대로 크게 밀렸다.

8000만원 이하 SUV에서는 폭스바겐 티구안이 4581대 판매돼 압도적 인기를 과시하고 있다. 8000만원이 넘는 SUV 중에는 BMW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X6가 765대, X5가 755대 판매돼 1520대의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다. 랜드로버는 디스커버리4 693대를 비롯해 총 1455대를 판매해 만만치 않은 인기를 과시했다. 이밖에 메르세데스 벤츠 M클래스는 663대, 포르쉐 카이엔은 655대, 아우디 Q7은 345대가 판매됐다.

올해 4000대가 넘게 판매된 폭스바겐 골프

지난 몇 년간 독일차의 강세는 더욱 두드러지는 추세다. 남은 하반기에도 다양하고 경제성 높은 차종을 앞세운 독일차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장의식기자 fmrari@metroseoul.co.kr

15억 호가하는 뒤집힌 제니 우표 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필라코리아 2014 세계우표전시회'에서 어린이 관람객들이 15억원을 호가하는 '뒤집힌 제니' 우표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삼성, 이재민 돕기 나선다

대한적십자사에 국제 긴급구호품 전달

삼성그룹이 지진, 태풍, 쓰나미 등 국제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긴급구호품 5억원 어치를 대한적십자사에 7일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국제긴급구호품은 5인 가족이 한 달간 사용할 수 있는 비누, 화장지, 치약, 수건 등 8종으로 구성된 위생용품 7000세트와 담요 1만6000장이다.

국제긴급구호품은 국내 최초로 전 세계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국제적십자사연맹 표준에 따른 구호 물품과 영문 설명서를 구비해 국제 재난구호 맞춤형으로 제작됐다.

국제운송비를 줄이기 위해 포장박스 크기를 국내용 긴급구호품 보다 약 30% 줄이고, 담요는 개별 진공 포장해 부피를 최소화하고 습기로 손상되는 것을 예방했다.

박근희 부회장은 "최근 해외에 대형 재난이 많아져 이번에 처음으로 해외 재난 구호에 특화된 긴급구호품을 만들게 됐다"며 "어려운 상황에 있는 해외 이재민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영천구 대한적십자사 긴급구호종합센터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박근희 삼성사회봉사단 부회장, 유중근 대한적십자사 총재, 자감 샤파강(Jagan Chapagain) 국제적십자사연맹 아태지역사무국장, 김주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총장, 삼성 임직원과 적십자 봉사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재영기자 yil453@

박근희 삼성사회봉사단 부회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서울 영천구 대한적십자사 긴급구호종합센터에서 국제 긴급구호품 세트를 포장하고 있다. /삼성 제공

"주가조작 꼼짝마!" 당국, 감시망 촘촘히…

#지난 2012년 방영된 드라마의 한 장면, 검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위 역을 맡은 남녀 주인공이 주가조작 사범을 잡기 위해 고속도로를 급습한다. 이동하는 차 안에서 주식을 매매하면서 IP주소를 계속 바꿔 어디에서 접속했는지 혼란을 주는 불법 행위를 잡기 위해서다.

그러나 2년이 흐른 2014년 현재 금융당국은 지능화된 주가조작 수법에 맞서 아예 어디서 접속했는지 속일 수 없도록 단말기 주소 격인 맥 어드레스(MAC Address)를 포착하는 시스템 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7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시스템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외부 업체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오는 12월 초까지는 시스템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시스템 개선에서 주식매매에 접속한 맥 어드레스를 자동으로 입수한다. 맥 어드레스란 컴퓨터 또는 무선단말기 네트워크 장치의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IP주소와 달리 접속 위치가 달라져도 변동할 수 없으므로 접속 정보에 혼선을 주기 위해 이동 차량으로 주식매매를 하는 행위를 무력화한다.

기존 주가조작 사범은 통신사에 따라 이동하는 차량의 IP주소가 기지국마다 변경되는 점을 악용해 불법 매매를 지질렀다.

또 금감원은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맥 어드레스를 하나 찾아내면 고구마 줄기를 캐내듯 이와 연계된 계좌들을 추출해 공모관계를 파악하는 기능도 시스템 개선에 추가할 방침이다.

맥 어드레스가 같은 계좌 간 가장매매나 자기거래(통정매매)를 분석하고 1개의 맥 어드레스와 연계된 2개 이상의 계좌를 추출해 이들의 관계 등을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들어 최근 증권사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서도 맥 어드레스를 수집하고 있다"며 "향후 시스템 개선이 되면 이 부분이 자동화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조현정기자 hjcm1@

두산인프라, 밥캣 'R&D센터' 준공

두산인프라코어는 7일 소형 건설장비 부문인 밥캣이 미국 노스다코다주 비즈마크 사업장에 최첨단 R&D센터인 'Acceleration Center'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Acceleration Center'는 밥캣의 신기술 개발과 혁신을 가속화 하는 복합연구시설로 2800만 달러를 투자해 지상 2층 연면적 1만8000㎡ 규모로 지어졌다.

두산인프라코어는 'Acceleration Center'를 최첨단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아이디어 도출부터 시제품 제작, 컴퓨터 시뮬레이션 테스트까지 한 번에 수행할 수 있어 신제품 개발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8만9000㎡ 규모의 야외 장비 시험장이 설치돼 다양한 조건에서 시제품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앞서 두산인프라코어는 지난달 30일 인천공장에 전사 R&D 역량을 결집시키고 건설기계와 엔진 부문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R&D 센터'를 준공한 바 있다.

/김x희기자 kimx@

정몽구 "10년 내 최고 브랜드로"

현대차 미국공장 설립 후 내수·수출 동반 상승
"쏘렌토 등 신형차 앞세워 성공 비전 마련하라"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향후 10년의 과제로 '소비자 최고 선호 브랜드로의 도약'을 제시했다. 6~7일(이하 현지시간)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과 기아차 조지아 공장을 연이어 방문하는 자리에서다. 정 회장은 2005년 앨라배마 공장 설립 이후 10년 간 미국 생산 시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정 회장은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현대차가 미국 JD 파워사의 신차품질조사(IQS)에서 일반 브랜드 1위를 탈환한 것을 치하했다.

특히 정 회장은 최근 생산을 시작한 신형 쏘나타의 생산 현황을 집중 점검하며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가 10년간 이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앨라배마 공장에서 쏘나타(NF)의 첫 차를 만들 때부터 모든 열정과 노력을 쏟아온 덕분"이라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07년 미국에서 46만대를 판매했던 현대차가 지난해 72만대를 판매한 것은 이곳 앨라배마 공장이 없어는 불가능했다"며 현지공장이 현대차의 글로벌 판매 확대와 위기 돌파 기여도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정 회장은 "지금까지의 10년은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일류 브랜드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며 "그동안 초기품질 1위, 북미 올해의 차 수상, 10대 엔진 선정 등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현대·기아차가 일류 브랜드가 되기 위해 모든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앞으로의 10년 동안 현대·기아차가 명실상부 일류 브랜드가 돼 소비자들이 최고로 선호하는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더욱 갈고 닦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곳 미국 현지 공장에서 만든 차들이 잘 팔려 국내 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에 수출하는 차도 함께 잘 팔리는 것"이라며 "여러분들의 노력이 국내 산업 성장을 동시에 이끈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라"고 강조했다.

/정x덕기자 ferrari@metroseoul.co.kr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 앨라배마 공장을 방문해 현지 관계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7월 수입 철강재 국내시장 40%

철강업계 "우려 수준"

국내 시황 부진에도 불구 지난해 말 이후 두 자릿 수 증가세(3월 제외)를 지속하고 있는 수입 철강재에 국내 철강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다.

7일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철강재 수입은 전월대비 3.8%, 전년대비 15% 증가한 188만7000톤을 기록해 상반기 철강 수입재의 국내시장점유율이 39.8%를 넘어섰다.

전체 수입의 57.4%를 차지한 중국은 전월대비 0.6%, 전년대비 32.3% 증가한 108만6000톤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일본산(61만5000톤)은 전월대비 15.4% 증가했으나 전년대비 12.4% 감소를 보였으며 전체수입의 32.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1~7월 수입누계는 전년대비 15.5% 증가한 1369만4000톤으로 집계됐다.

이중 중국산이 763만4000톤(전년비 31.2%↑), 일본산 421만8000톤(7.7%↓)을 기록해 중국산 철강재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전체수입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열연강판(전년대비 17.7%), 중후판(16.7%)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H형강(34.5%)의 경우 반덤핑 제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 국내 업계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외 국내 공급과잉 품목인 아연도강판(10.0%), 기타도금강판(74.5%), 칼라강판(122.2%) 등도 두 자릿 수로 증가했다. 대표적인 수입품목인 열연강판 7월 평균수입단가는 전년대비 1.2% 하락한 571달러로 2012년 4월부터 28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중이다.

중국산의 국내 명목소비 대비 점유율은 전년대비 3.7%p 증가한 23.2%, 일본산은 2.3%p 감소한 12.8% 기록됐다.

국내 철강업계 관계자는 "주요 품목별 수입재의 시장점유율은 국내 철강시장의 기반자체를 흔들 정도로 확대된 상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x석기자

혼다코리아 8월 이벤트 혼다코리아가 8월 한달간 전국 혼다 전시장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선물 제공 이벤트를 벌인다. /혼다코리아 제공

피플라이프, '매경경영지원본부' 출범

전국 300만 중소기업에 특화된 법인 금융 통합컨설팅 서비스가 선보인다.

국내 법인 재무컨설팅분야 No.1인 피플라이프와 매경미디어그룹은 중소기업 재무환경 개선을 위해 법인 통합컨설팅 전문조직인 '매경경영지원본부'를 최근 출범하고, 서비스에 나섰다.

매경경영지원본부는 피플라이프가 10여년간 축적한 법인 재무컨설팅 전문성 및 노하우와 함께 매경의 중소기업 인프라와 신뢰도를 바탕으로 결합해 운영된다.

본부는 매경미디어그룹 부설기관으로 출범하며 매경닷컴 성애설계센터 김xx 센터장이 본부장을 맡았다.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세무·가업승계·상속증여·부동산 등 법인 절세전략에서부터 인사노무·법무지원·IPO·M&A·CEO 리스크 관리 등 기업 경영효율화 전략과 개인의 재무전략 분야까지 원스톱 토탈컨설팅 서비스가 제공된다.

/김x균기자

구글글라스 쓰고 계단 오르면…

"구글글라스 쓴 사람이 뒤에 있으면 계단 오르기 겁날 것 같아요."

구글글라스의 국내 출시가 임박하자 적지 않은 여성들이 우려하고 있다. 국내 현행법상 구글글라스를 쓴 채 앞사람을 무단 촬영하거나 녹화된 영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7일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착용형 기기 관련 개인정보보호 법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출시된 착용형 기기가 장소·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각종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설계돼 정보의 오·남용 우려가 커지고 있다.

웨어러블 기기의 출하량은 올해 1920만대에 이르고 향후 5년간 연평균 78.4%의 성장이 예상된다.

특히 구글글라스는 보는 것을 그대로 녹화하고 이를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사생활 침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구글 안경의 네임 태그 기능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누군가의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면 인터넷상에서 이 사진과 일치하는 개인의 프로필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당사자의 허락 없이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 침해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보고서는 "기술의 발달로 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착용형 기기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용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x x기자

우체국 알뜰폰 재선정 '시끌'

이달 말 결정…대기업 계열·기존 사업자·중소사업자 간 의견 '팽팽'

서울 광화문우체국 관계자가 시민에게 우체국 알뜰폰을 안내하고 있다 /뉴시스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 재선정을 놓고 업체간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우체국에 입점된 에넥스텔레콤, 스페이스네트, 아이즈비전, 에버그린모바일 등 알뜰폰 6개사는 9월 27일을 기해 계약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사업자를 재선정해야 하지만 업체간 갈등 속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는 우본이 알뜰폰 사업자 재선정과 관련해 사업 연속성이나 운영 재정 문제, 알뜰폰 사업자 간 갈등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는데 어려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우체국 알뜰폰 선정에 사업자를 1~2곳 늘릴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가 추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초 지난해 우체국 알뜰폰 서비스가 시작될 당시 SK텔링크, CJ헬로비전, 한국케이블텔레콤(KCT) 등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들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 활성화를 위해 자진 양보했다.

하지만 1년새 상황이 달라졌다.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에 포함된 6개 사업자는 전체 알뜰폰 시장의 45%를 육박한다.

이처럼 우체국 알뜰폰으로 인한 가입자 확대가 눈에 띄게 급증하자 대기업 계열 알뜰폰 사업자도 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모습이다.

대기업 계열 알뜰폰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들이 우체국이라는 판매 플랫폼을 활용해 알뜰폰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대기업 계열 알뜰폰이 우체국 알뜰폰 사업에 참여한다면 고객 신뢰도 제고와 사업 개선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현재 우체국 알뜰폰 사업에 참여하고 싶지만 대기업과 현재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의 벽에 막혀 있는 중소 사업자도 하소연하고 있다.

중소 알뜰폰 관계자는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이하 알뜰폰협회)는 현재 우체국 알뜰폰 사업에 진출해 있는 업체들이 이사사로 군림하고 있어 우리 같은 중소 사업자의 목소리를 내기 힘들다"면서 "우본이 이번 우체국 알뜰폰 사업자 재선정에서 알뜰폰협회만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이는 공평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현재 우체국 알뜰폰 서비스에 포함된 업체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를 배제하고 새로 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면 전산 시스템이나 우체국 이용자에 맞춘 요금제 구축 등 시간·비용적 소모가 그만큼 클 것"이라며 "기존 사업자를 그대로 데려가되 1~2곳의 업체를 추가하는 방안이 가장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영기자 ljy340@metroseoul.co.kr

익살스런 온라인 동영상 '화제'

홈피·SNS·유투브로 공개…젊은 층에 큰 호응

통신사가 익살스런 온라인 전용 동영상으로 화제 몰이에 나서고 있다.

TV 광고 동영상과 달리 온라인 동영상은 홈페이지와 SNS, 유튜브를 통해서만 공개되며 주로 젊은 고객을 겨냥해 제작된다. 유튜브 광고 영상으로 쓰일 경우 최소 5초 밖에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흥미를 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온라인 동영상 제작에 패러디 기법을 활용하는 통신사가 늘어나고 있다.

부자 갈등 프로그램 '사랑과 전쟁'을 패러디한 LG유플러스의 '가족과 할인' 온라인 동영상은 지난 4일 공개된 지 나흘만인 7일 현재 조회수 6만7000건을 돌파했다. LG유플러스는 지인 4명을 추천하면 요금을 최대 2만원 할인하는 '가족 친구할인' 상품 홍보를 위해 이 영상을 제작했다.

1990년대 인기 아이돌 그룹 '젝스키스' 멤버인 장수원은 이 광고의 주연을 맡아 개성 넘치지만 왠가 어설픈 연기력을 보여준다. 앞서 장수원은 KBS1 '사랑과 전쟁'에 출연해 연기자 변신을 시도했지만 부정확한 발음과 어색한 연기력으로 '발로 하는 발연기'란 혹평을 받았다. 하지만 LG유플러스는 장수원의 연기력이 대중들에게 재미와 친근함을 준다고 판단해 그를 주인공으로 한 온라인 동영상을 만들었고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다.

SK텔레콤은 지난달 '속도의 레전드'란 온라인 동영상을 선보였다. 이 영상은 광대역 LTE-A의 특징을 알리기 위해 이소룡과 무하마드 알리를 패러디하며 실제 모델을 닮은 배우를 출연시켰다. 이소룡과 무하마드 알리는 광대역 LTE-A만큼 빠른 무술 실력을 선보인다. 재치있는 패러디의 이 영상은 SK텔레콤 내부 사전 평가에서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상을 기획한 SK텔레콤 관계자는 "광대역 LTE-A가 기존 LTE보다 3배 빠르다는 의미를 반영해 영상 속 선수들이 손가락 세개를 펼치며 포효하는 모습을 담았다"면서 "이소룡이 아뵤~를 외치며 엄지 손가락을 코에 가져가는 특유의 동작을 할 때도 3배 빠름을 의미하는 세 손가락을 사용하는 등 섬세함을 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KT도 패러디 광고로 인기를 모은 바 있다. 지난해 KT는 MBC 드라마 '금나와라 뚝딱'에서 부부로 나오는 중견 배우 한혜진과 이해숙을 기용해 실제 드라마를 보는듯한 광고 제작 방식과 카피로 화제를 모았다. /장윤희기자 unique@

'사랑과 전쟁'을 패러디한 LG유플러스의 '가족친구할인' 상품 온라인 광고. 가수 출신 배우 장수원이 주연을 맡았다 /영상 캡처

구로G밸리 중심 '대림 포스큐' 분양

수익형부동산의 과잉 공급으로 투자 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가운데 하루 유동인구 약 30만 명을 확보한 특급 입지에서 '포스큐' 오피스텔이 나온다.

서울 구로구 공원로 11(옛 구로동 106-2번지)에 위치한 '포스큐'는 지하 4층, 지상 20층, 1개동, 전체 464실 규모다. 오피스텔 289실과 도시형생활주택 175가구로 이뤄져 있다. 전용면적 19.01~21.25㎡ 4개 타입으로 구성됐다.

포스큐가 들어설 구로구 일대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 G밸리가 조성돼 있어 정보기술(IT) 산업의 중심으로 거듭나는 중이다. 향후 'G밸리 2020프로젝트 비전'에 따라 첨단기업비율은 93%까지 높아지고, 25만 명의 고용인구가 발생할 전망이다.

'포스큐'는 각종 에너지절감 시스템 적용으로 관리비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우선 옥상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해 공용부분 전기료를 충당할 예정이다. 또 세나가는 에너지를 잡기 위해 5층 이하 저층 외벽에 단열재 마감 후 착색을 추가 시공하고 단열 효과가 뛰어난 로이유리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역냉·난방 시스템과 LED전구도 적용된다.

냉장고, 드럼세탁기, 에어컨과 같은 가전제품이 풀옵션으로 제공되고 옷장, 신발장 등의 가구가 빌트인으로 구성된다. 또 좁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회전식 테이블, 다양한 수납공간 등도 적용된다.

분양가는 주력 평형인 A타입 기준으로 1억2300만~1억2900만원대(VAT 포함)로 책정됐으며 실투자금은 3000만원대다. 지난 2011년 7월 대림역 일대에서 마지막으로 공급됐던 오피스텔의 같은 면적대 분양가보다 700만원가량 낮은 금액이다. 인근 임대료 시세는 현재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60만원 수준이다.

포스코플랜텍이 시공, 생보부동산신탁이 시행 겸 수탁을 맡았다. 신도림역 2번 출구 테크노마트 맞은편에 모델하우스를 운영 중이다. 낮에 상담을 받기 어려운 고객을 배려해 야간상담을 한다. 이색커피숍 무료 운영으로 편의를 더했다. 문의 02) 363-3838 /박선옥기자 psn@

"이젠 데이터도 선물하세요"

스마트폰 데이터가 이젠 선물 아이템으로 등장했다. 인터넷 검색은 물론 게임, 영화관람, 심지어 데이트까지 데이터를 통해 할 수 있는 '데이터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고객은 남는 데이터를 가족, 지인에게 선물할 수 있다. 'T끼리 데이터 선물하기'와 'T끼리 데이터 자동 선물'을 통해서다.

'T끼리 데이터 선물하기'는 자사 고객끼리 최대 2GB(선물 1회 당 최대 1GB, 월 2회 가능)의 데이터를 무료로 선물할 수 있다. 다만 이 서비스는 LTE42, LTE T끼리 45, LTE 전국민 무한 75, 3G T끼리 45, 3G 전국민 무한 75 이상의 요금제를 가입한 고객에 한해 제공된다.

'T끼리 데이터 자동 선물'은 'T끼리 온가족 할인', 'TB끼리 온가족무료', 'TB끼리 온가족프리' 가입 고객 중 결합돼 있는 T끼리 가족을 대상으로 매달 1일 데이터를 선물할 수 있다.

KT는 통신사와 관계없이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올레 와이파이 이용권'을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선보였다. '올레 와이파이 이용권'은 기기 와이파이를 보유한 전국 20만개 올레 와이파이 존에서 사용 가능하다. 상품은 1시간권(1100원), 1일권(3300원), 4일권(9900원)으로 구성됐다. 구매는 전국 편의점, 올레 와이파이 존 접속 페이지, 올레닷컴에서도 할 수 있다.

KT 관계자는 "이 상품으로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태블릿PC, 노트북 등 무선인터넷이 필요한 친구에게 데이터를 선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승희기자 ssh814@

게임빌·컴투스 최대 실적, '비결은…'

Issue&View

게임업계 이슈 시리즈

/박성훈기자

모바일게임사 게임빌과 컴투스가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게임빌의 송병준 대표는 지난해 10월 컴투스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양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

형제가 된 두 기업이 레드오션인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이처럼 나란히 승승장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게임빌은 6일 지난 2분기와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다. 2분기 매출 332억원, 상반기 매출 610억 원을 기록, 각각 전년 동기 대비 62%, 61% 증가하며 분기,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게임빌의 효자 상품은 '별이되어라!'와 이사만루2014 KBO'다. 두 타이틀 덕에 국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늘었다.

별이되어라!는 RPG 장르다. '애니팡', '아이러브커피'와 같은 기존 모바일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냈던 '팡' 게임류나 소셜네트워크게임(SNG)과는 성격이 다르다.

즉 온라인게임의 대표 장르인 MMORPG와 큰 차이가 없는 콘텐츠를 스마트폰에 옮겨놓은 것이다.

RPG '별이되어라!' 어려운 게임 니즈 적중
'낚시의 신' 해외 강태공들로부터 좋은 반응

쉽고 단조로운 게임보다는 흥미로운 고난도 게임을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간파했다는 평가다.

이사만루2014 KBO는 실사형 야구게임으로 실제 프로야구 선수의 외모와 투구폼 등을 사실적으로 적용해 호평받고 있다.

2등신의 아기자기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기존 야구게임과는 차이가 있다.

컴투스는 같은날 2분기 ▲매출 430억원 ▲영업이익 173억원 ▲당기순이익 140억원을 기록, 역대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12%, 754%, 331% 증가했고 전기 대비 104%, 784%, 1,225% 증가한 수치다.

'낚시의 신'과 '서머너즈 워: 천공의 아레나' 등 신작 게임의 글로벌 흥행이 이와 같은 가파른 성장을 견인했다.

안방을 사수한 게임빌과 달리 해외에서 달러를 수확했다.

낚시의 신은 전세계 유명 낚시터의 정보와 이미지를 현실적으로 반영해 글로벌 강태공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서머너즈 워는 간단한 조작으로도 온라인게임을 하는 것처럼 호쾌함을 느낄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모바일게임 터줏대감 역할을 해온 두 기업이 한 가족이 된 뒤 각각의 장점을 살리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모바일기기의 성능이 갈수록 개선되는 만큼 두 기업의 성장세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1·2위 모바일게임, 네이버 밴드 떠나

폐쇄형 모바일 메신저 '밴드'의 게임 서비스가 카카오톡 게임하기에 사세가 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 자회사 캠프모바일이 운영하는 밴드는 당초 카카오톡 게임하기에 맞서 밴드게임을 서비스했지만 폐쇄형 메신저 특유의 제한성과 카카오톡 성장에 밀려 게임 서비스 부진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 계열인 모바일 메신저 '라인'도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는 인기지만 국내에서는 카카오톡에 한참 밀리는 형국이다.

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아프리카TV와 코카반은 각각 현재 밴드 게임 인기순위 1~2위인 '역전! 맞짱탁구'와 '라바링크'를 카카오톡 게임하기에서 서비스하기 위한 계약을 마쳤다. 밴드 게임 1위인 '역전! 맞짱탁구'는 지난 4월 밴드 게임 1차 라인업을 통해 출시됐으며 서비스 두달만에 50만 내려받기를 넘기며 흥행한 작품이다.

아프리카TV 관계자는 "현재 '역전! 맞짱탁구'의 카카오톡 게임하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으며 출시일은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역전! 맞짱탁구' 뿐 아니라 당초 밴드 게임으로 출시된 게임들이 속속 카카오톡 게임하기로 갈아 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른 게임사들도 수익성을 이유로 밴드에서 출시한 모바일 게임을 카카오톡 버전으로 재출시하는 조짐이 거세다.

캠프모바일 측은 밴드 가입자가 증가 추세라 게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지만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 카카오톡이 제지하는 압도적 점유율 속에서 사세 반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운희기자 unigun@

이대형(왼쪽) 파티게임즈 대표와 요시아키 반다이코리아 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파티게임즈 제공

SD건담 스마트폰 게임으로 즐긴다

파티게임즈 8월말 '배틀스테이션' 출시

모바일게임 스테디셀러 '아이러브커피' 제작사인 파티게임즈가 건담을 선택했다.

이 회사는 최근 SD건담의 원작사이자 판권 보유 기업인 반다이코리아와 함께 RPG 'SD건담 배틀스테이션'을 공개하고 8월말 선보인다고 밝혔다.

신작은 가상의 미래를 배경으로 귀여운 외관이 특징인 SD건담이 서로 전투를 하면서 로봇을 수집하고 육성하는 게임이다.

다양한 건담과 풍부한 콘텐츠로 자신만의 함대를 구성할 수 있으며 PvE(이용자와 AI)와 PvP(이용자 간) 전투를 즐길 수 있다.

풀 3D 그래픽이 선사하는 섬세한 비주얼은 온라인게임에 버금가는 리얼리티를 제공한다.

SD건담 배틀스테이션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티스토어, N스토어 3개 마켓과 애플 앱스토어에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대형 파티게임즈 대표는 "SD건담 배틀스테이션은 시대를 초월한 콘텐츠인 건담에 파티게임즈의 노하우가 더해진 물건"이라며 이 게임이 코스닥 상장을 앞둔 자사의 최대 기대작임을 에둘러 표현했다. /박성훈기자

열대야… "시원·매콤 면요리 어때요"

물냉면 메밀 소바 등 화끈한 '이열치열'형 인기

연일 무더위와 높은 습도에 밤잠을 설치는 이들이 늘면서 덩달아 시원한 면요리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식품업계는 더욱 시원한 국물 맛이나 화끈하게 매운 양념장을 개발해 선보이는 등 소비자들의 여름 입맛 잡기에 나섰다.

대상FNF 종가집의 신제품 '데이즈 냉면 2종'은 시원한 동치미 육수로 맛을 낸 '동치미 물냉면'과 매콤한 비빔장으로 맛을 낸 '매운 비빔냉면'으로 구성됐다.

팔도의 '쫄비빔면'은 쫄면 같은 식감의 쫄깃하고 탱탱한 면발과 맛있게 매운 비빔소스가 조화를 이룬 제품이다. 찰감자전분을 넣어 쫄면 면발과 같은 식감을 구현했다.

풀무원식품은 구수한 메밀면을 매콤한 비빔장과 동치미국물에 쓱쓱 비벼먹는 '메밀막국수'와 국산 보리를 더해 면발이 더욱 부드럽고 쫄깃한 '보리쫄면'을 내놨다.

오뚜기의 '메밀 비빔면'은 기존 메밀 비빔면에 동봉됐던 감가루가 들어있는 별첨스프를 추가하고 억 샵스프를 개선한 새로운 메밀 비빔면을 선보였다.

종가집의 데이즈 동치미냉면, 팔도의 쫄비빔면, 풀무원의 메밀막국수 (왼쪽부터)

삼양식품의 '국물자작 2종'은 국물이 자작하게 있는 비빔면 타입으로 국물이 자작하게 스며든 면발과 함께 진한 국물에 밥에 비벼먹어도 맛있는 새로운 콘셉트의 제품이다.

편의점 GS25는 여름철을 겨냥해 하반기에만 판매하는 시즌 상품으로 '치즈불닭면'과 '냉메밀면'을 선보였다. '치즈불닭면'은 닭가슴살에 매운 불닭소스와 치즈를 넣어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매우면서도 고소한 제품이다. '냉메밀면'은 여름철 인기메뉴인 냉메밀을 편의점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한 상품으로 진한 가쓰오부시 국물이 특징이다.

농심은 최근 국내 최초로 물냉면과 비빔냉면의 장점을 한데 모은 '태풍냉면'을 출시했다. 국내산 무로 담근 동치미 육수에 고춧가루와 국내산 사과, 배 등을 발효 숙성시킨 매운 양념장을 더했다. 면발은 메밀과 감자전분을 반죽해 길게 뽑아 바람에 말린 건면 타입으로, 더욱 자지고 쫄깃한 식감을 자랑한다.

/정경록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편의점 조리빵 남녀 선호 다르다

남자는 햄버거, 여자는 샌드위치 많이 찾아

편의점에서 조리빵을 고를 때 남성은 햄버거를, 여성은 샌드위치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세븐일레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조리빵 성별 매출 구성비를 분석하고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7일 밝혔다.

조리빵이란 빵에 햄·치즈·양파 등 각종 부식을 조합한 빵으로 샌드위치, 피자, 햄버거 등이 해당한다. 세븐일레븐에서는 햄버거와 샌드위치, 롤샌드 등의 조리빵을 판매하고 있는데 조리빵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햄버거와 샌드위치의 매출 구성비를 분석한 결과 남성의 햄버거 매출 비중은 58.6%으로 샌드위치(41.6%)보다 많았다. 반면 여성은 샌드위치(52.4%)에 대한 선호가 햄버거(47.6%)보다 높았다.

회사 측은 일반적으로 남성은 포만감을 느낄 수 있는 든든한 빵을 선호하는 반면 여성은 건강과 맛을 중시하고 체중 관리를 위해 조금이라도 칼로리가 낮은 빵을 더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햄버거는 남성들의 입맛에 맞춰 고기를 주 재료로 해 용량을 높이고, 샌드위치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샐러드 류 재료를 사용한 신상품을 개발, 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희재 세븐일레븐 푸드 MD는 "편의점 식사대용상품 인기가 높아지면서 타깃층에 따라 보다 세분화된 상품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중장년 1~2인 가구 구성비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연령에 따른 상품 세분화도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븐일레븐은 남성들을 위한 햄버거로 '더커진 빅고구마피자버거'를 7일 출시했다. 이 제품의 중량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햄버거 평균 중량 130g의 약 1.8배인 230g으로 현재 세븐일레븐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 중 가장 크다. 주 타깃층인 남성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현재 일본에서 활약 중인 야구 선수 이대호를 모델로 하고 기존 빅버거 제품들과 신제품의 패키지를 리뉴얼했다.

이와 함께 여성들이 좋아하는 크랜베리와 닭가슴살, 호두, 아몬드를 마요네즈 소스에 버무려 호밀·소맥·귀리 등 7가지 잡곡이 들어간 곡물 빵과 함께 만든 샌드위치 '크랜베리치킨샌드'도 다음주 선보일 예정이다.

/정혜인기자 [illegible]

여름밤에 즐기는 '간편 야식 3종'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밤, 야식 생각이 더욱 간절하기 마련이다. 조리법이 복잡하거나 재료가 어려운 요리 말고, 냉장고에 있는 평범한 재료들로 간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간편 야식 3종을 소개한다. 자료 제공: 메뉴판닷컴(www.menupan.com)

◆감자피자

분량: 2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435kcal / 조리시간: 30분

[주재료] 감자 큰 것 2개, 피자용 치즈 200g, 찬밥 1공기, 햄 30g, 방울토마토 4개, 피망 1/2개, 식용유 약간, 양파 30g

[양념] 토마토케첩 2큰술, 소금 약간, 후춧가루 약간

1. 감자는 가늘게 채 썰어 찬물에 헹구어 건진 후 물기를 뺀다.
2. 방울토마토는 0.2cm 두께로 썰고 피망은 가로, 세로 1cm로 썰고 햄·양파는 잘게 다진다.
5.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햄·양파를 볶다가 찬밥을 넣어 잘 섞어준다.
6. ⑤에 토마토케첩, 피망을 넣고 소금·후춧가루로 간을 맞춘다.
7. 프라이팬에 채썬 감자를 깔고 소금·후춧가루를 뿌린 후 피자 치즈를 올린다.
8. ⑦위에 ⑥의 볶음밥을 올린 후 다시 피자 치즈를 얹는다.
9. ⑧위에 피망·방울토마토를 올린 후 은근한 불에서 팬의 뚜껑을 덮고 익힌다.

◆해물볶음우동

분량: 4인분 / 난이도: 보통 / 열량: 435kcal / 조리시간: 30분

[주재료] 우동면 200g, 새우 4마리, 홍합 100g, 오징어 1마리, 양배추 1/4포기, 양파 1/4개, 마늘 2쪽, 피망 1개, 청주 1큰술

[양념] 우스터소스·간장 각 1큰술, 굴소스 2큰술, 설탕 1작은술, 참기름·후춧가루·가쓰오부시 각 약간

1. 양배추·양파·피망은 약간 굵게 채 썰고 마늘은 얇게 저민다.
2. 오징어는 껍질을 벗겨 먹기 좋게 썰고, 새우는 내장과 껍질을 제거하고 끓는 물에 데친다.
3. 홍합은 깨끗이 씻고 불순물을 제거해 살만 떼어 끓는 물에 데친다.
4. 우동면은 부드럽게 삶아 물기를 제거해 준비한다.
5. 프라이팬은 달궈 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볶아 향을 낸 뒤 해물을 볶다가 청주를 넣어 수분을 날리고 양배추·양파·피망을 넣고 살짝 볶는다.
6. ⑤에 굴소스, 간장, 우스터소스, 설탕을 넣고 볶다가 준비한 우동면을 넣어 잘 버무린 후 후춧가루와 참기름으로 마무리해서 접시에 담고 먹기 전에 가쓰오부시를 올려 함께 먹는다.

◆참치야채전

분량: 2인분 / 난이도: 초보환영 / 열량: 250kcal / 조리시간: 30분

[주재료] 참치캔, 계란, 청고추·홍고추 각 1개, 양파 1/4개

[양념] 소금, 후춧가루 각 약간

1. 참치는 체에 밭쳐 기름을 제거한다.
2. 청고추와 홍고추는 잘게 다지고, 양파도 잘게 다진다.
3. 볼에 ①과 ②를 섞고 계란을 풀어서 소금·후춧가루로 간을 한다.
4.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먹기 좋은 크기로 구워낸다.

롯데리아 '디딤씨앗통장' 후원

롯데리아는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잠실에 위치한 캐슬리아에서 디딤씨앗통장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한동욱(사진 왼쪽) 롯데리아 마케팅부문장과 지종봉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초청 아동 20명 등이 참석했다.

2007년부터 시작된 '디딤씨앗통장' 사업은 후원 기업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소득층 아동에 지원하면 국가가 1대1 매칭금을 아동에게 적립 지원해주는 사회복지사업이다.

롯데리아는 지난 2011년부터 '디딤씨앗통장'을 통해 연간 만 18세 미만 100명의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3600만원을 후원하고 있다.

/정경록기자

'레쓰비 카페타임' 리뉴얼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가 캔커피시장 1위 브랜드 '레쓰비'의 프리미엄 제품인 '레쓰비 카페타임' 3종(모닝커피·라떼·아메리카노)의 패키지 리뉴얼을 실시했다.

'카페타임 모닝커피'는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이 풍부하고 아침을 깨우기 적당한 카페인과 우유분이 최적의 밸런스를 이뤄 아침에 마시기 좋다. '카페타임 라떼'는 향긋한 커피와 풍부한 우유분의 조화로 부드럽고 달콤한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카페타임 아메리카노'는 엄선된 브라질산 커피 농축액을 주원료로 감미로운 풍미를 느낄 수 있어 나른한 오후 휴식과 함께 즐기기 좋다.

/정경록기자

해외여행지…연령대별 선호 달라

소셜커머스 쿠팡(대표 김범석)은 올 여름 휴가 시즌의 여행상품 판매 트렌드를 분석한 결과 해외 여행상품 판매가 급증했으며 연령대별 선호 여행지도 다르게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쿠팡에 따르면 지난해 연령대별 인기 여행상품 중 해외여행 상품은 1~2건 정도인데 비해 올해는 상위 10개 중 최대 6개가 해외여행 상품이었다. 특히 태국·중국 등 아시아 상품 위주에서 유럽·터키 등 지역도 다양해졌다.

연령대별로 선호하는 여행지와 스타일의 차이도 뚜렷했다.

50대는 여행 계획 세울 필요 없이 부부간에 여유롭게 관광을 즐길 수 있는 패키지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특히 서유럽·터키 등 고가의 유럽 여행 상품이 인기를 얻으면서 50대 인기상품 상위 10위 안에 5개나 포함됐다.

30~40대는 어린 자녀들 동반한 가족 여행으로 적합한 근거리 휴양지를 선호했다. 가족단위 해외 여행지로 인기가 높은 '괌PIC' 상품은 40대 인기 상품 1위에, 30대에는 2위에 오르는 등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외에도 리조트 내에 모든 즐길거리를 갖추고 있어 별도의 이동 없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워터파크 등 가족 레저 상품도 인기를 끌었다.

20대는 직접 동선과 스케줄을 계획할 수 있는 자유여행 상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젊은 층 사이에서 휴가만큼은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으로 자유롭게 활용하고 싶어하는 싱글 여행족이 증가하여 자유여행 상품들이 높은 판매량을 기록한 것. 대만·싱가포르·코타키나발루 등의 근거리 자유여행 상품들이 20대의 주요 인기 상품에 올랐다.

김성익 쿠팡 여행문화사업부장은 "리조트 이용권, 항공권, 스파권 등 개별 상품이 인기 상품으로 꼽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해외 패키지 상품이 인기를 얻은 것이 특징"이라며 "이동수단·숙소·관광지·체험 프로그램까지 한 번에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패키지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판매가 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황예린기자

진황도 황금해안해변골프클럽 /아이엘투어 제공

아웃도어 캐리어 잘 나가네~

수납력·내구성 뛰어나 휴가철 맞아 판매 호조

아웃도어업계들이 사실상 비수기로 불리는 여름 시즌에 '여행 가방'으로 재미를 보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효과적인 수납과 내구성이 뛰어난 기능성 여행 가방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밀레는 지난달 출시한 '캐이트 컬렉션'의 조기 물량이 한달 여 만에 35%가량 팔렸다고 7일 밝혔다.

컬렉션은 캐리어, 백팩·숄더백, 보스턴백, 파우치, 힙색, 여권지갑 등 7종으로 구성됐다. 업체 측은 수납력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의 여행 가방 사용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내부 공간을 꾸몄다고 설명했다. 또한 캐리어에 마찰 저항을 줄이는 볼 베어링 바퀴를 적용, 다양한 지형에서도 부드럽게 핸들링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K2 역시 백팩·숄더백·여행용 가방의 3단 변신이 가능한 여행 가방 '스퀘어 33'을 출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 제품은 양 어깨끈을 돌돌이로 집어넣고 가방 측면에 달린 손잡이를 이용하면 기내용 캐리어가 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K2는 설명했다. 또한 여행 캐리어에서만 볼 수 있는 엑스자 모양 밴드로 가방 내부를 분리시켜 옷과 기타용품이 흩어지지 않는다고 업체 측은 덧붙였다. K2는 이번 시즌 스퀘어 33의 인기에 힘입어 내년에는 여행 가방 디자인과 물량을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블랙야크는 올해 여행 가방 종류를 지난해보다 7종 늘려 선보인 결과 5~7월 판매량이 2~4월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블랙야크 상품기획부 김혜규 차장은 "지난해 출시한 제품 중에는 캐리어백과 백팩을 겸용으로 쓸 수 있는 '티엘'에어'가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으며, 올해는 '티엘 힙색'의 반응이 좋다"고 전했다.

티엘 힙색은 지갑·여권·휴대전화 등을 간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데다 달리기와 자전거 타기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 시에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업체 측은 강조했다. /박지원기자 now@metroseoul.co.kr

강강술래, 전통무용극 '배비장전' 티켓 이벤트

휴가철 육류·가정간편식 최대 40% 할인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가 이달 말까지 전통무용극 '배비장전' 티켓을 증정하는 문화바캉스를 마련했다. 정동극장에서 진행되는 '배비장전'은 조선시대 풍자문학의 대표작인 동명의 고전소설을 재창작해 무용과 음악·영상·마임을 융합한 무용극으로 올해 10년째인 작품이다. 특히 국내 전통극 상설공연 사상 최초로 관객 100만 명을 동원했다. 홈페이지(www.sullai.com) 문화공룡 이벤트에 신청글을 남기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티켓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오는 10일까지 전 매장과 쇼핑몰(sullaimall.com), 전화주문(080-925-9292)을 통해 매장 인기메뉴로 구성된 바캉스 세트를 최대 40% 할인 판매한다. 행복세트(한우불고기1kg+돼지양념1kg)와 사랑세트(한우불고기1kg+LA갈비900g)는 4만원, 어메이징세트(왕양념갈비560g+술래양념520g+한우불고기1kg)는 8만5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3000원의 배송비 추가 시 휴가지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실시한다.(도서산간 별도 문의)

같은 기간 전 매장에서는 갈비맛쇠고기육포(6봉)는 2만1600원, 한우사골곰탕 소용량세트(350㎖ 5팩 10인분) 1만8900원, 대용량세트(800㎖ 5팩 15인분)는 3만2400원에 판매한다. 첨정한우떡갈비(360g 1만2000원)와 흑염자한돈너비아니(360g 7200원), 모짜렐라돈가스(720g 1만400원), 통통 성돈가스(720g 9000원)도 정상가의 40% 할인가로 선보인다. /황재용기자 hsoul38@

아이엘투어, '진황도 골프투어' 출시

일본·태국 등 해외 여행과 국내 상품도 다양

국내외 골프여행 전문 여행사 아이엘투어(http://ilgolf.co.kr)가 휴가시즌을 맞아 시원하고 특별한 골프여행 상품 '진황도 골프투어'를 출시했다.

아직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진황도는 중국 주석을 비롯한 최고위층이 여름 휴양지로 자주 찾는 곳으로 회사는 VIP 전용 골프장인 황금해안해변골프클럽에서의 골프라운딩을 준비했다.

또 티웨이항공 진황도 전세기편을 확정했으며 상품은 4박 5일 90홀 94만원으로 매주 수요일 출발한다.

이와 함께 회사는 연평균 기온 17도로 쾌적한 환경을 갖춘 일본 규슈 최남단의 '미야자키 골프투어'도 선보였다. 상품은 3일 54홀 79만원으로 항공료, 공항~골프장 셔틀비 등이 포함돼 있으며 6일 108홀 89만원 상품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이외에도 골프텔·전동카트 등을 하루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태국 그랜빌트'와 고창과 제주 등의 국내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이 마련돼 있다. 문의 02)541-4242 /황재용기자 hsoul38@

속옷 구매, 야(夜)심한 시각 모바일로

혼자 있는 밤 시간 이용해 쇼핑 증가 추세

속옷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밤 시간대에 모바일 쇼핑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오픈마켓 11번가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속옷 매출의 모바일 비중은 54%로 의류보다 8% 가량 높게 나타났다.

특히 모바일11번가 내 시간대별 속옷 매출을 분석한 결과 밤 9시부터 자정까지의 속옷 판매량 비중이 전체의 29%를 차지했다.

11번가 패션연구소의 함효경 담당자는 "혼자 있는 밤 시간을 이용해 속옷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권수진 11번가 언더웨어 담당 MD는 "속옷 쇼핑의 경우 커다란 모니터 화면보다는 작은 스마트폰이 다른 이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은밀하게 구매할 수 있는 통로"라며 "최근엔 연인에게 줄 선물로 속옷을 구매하는 남성들도 늘어 개인 프라이버시가 지켜지는 모바일 쇼핑에 더욱 선호된다"고 설명했다.

속옷 중에서도 볼륨을 살릴 수 있는 브라 패드의 모바일 매출은 7월 한 달간 전년 동기보다 69% 증가했다. 섹시 팬티·망사 스타킹 같은 이벤트용 섹시 속옷은 같은 기간 75%, 딱 달라붙는 옷을 입어도 티가 안 나는 노라인·누드 브라는 39% 증가했다.

디자인과 색상이 다양한 저가형 속옷이 속속 출시되면서 1만원 이내의 속옷 세트도 반응이 좋다고 회사 측은 전했다. /황재용기자

사라졌던 세면대 비누 '부활 거품'

왼쪽부터 미오림 '헤조 모공 비누', 네이처리퍼블릭 '네추럴 클렌징솝 EXO 기획세트', 스웨덴 에그팩.

세정력은 기본… 모공·각질 관리까지 한번에

클렌징 폼·오일·워터 등에 밀려 세면대에서 자취를 감췄던 비누가 '부활의 거품'을 일으키고 있다.

화장품 브랜드들이 올여름 독특한 성분과 기능으로 무장한 이색 비누를 잇따라 내놨다. 탁월한 세정력은 기본, 보습과 모공·각질 관리까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미오림은 남성용 '타존 모공 비누'와 여성용 '헤조 모공 비누'를 선보였다.

일반 비누와 달리 얼굴에 직접 문지르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여러 제품을 사용하는 번거로움 없이 비누 하나로 세안부터 모공·각질 케어까지 한번에 해준다고 업체 측은 강조했다.

헤조 모공 비누는 갈색 해조 추출 알갱이가 부드럽게 각질을 제거하고, 살리실릭산이 모공 속 노폐물을 청소하고 일시적인 모공 축소 효과까지 선사한다. 피지와 땀을 조절해 촉촉한 피부로 가꿔주는 타존 모공 비누는 비누 세안만으로도 효과적인 클렌징을 할 수 있어 귀차니즘 남성들에게 인기다.

네이처리퍼블릭은 100% 코코넛 유지 성분이 함유된 천연 세안 비누를 EXO(엑소)의 화보 패키지에 담은 '네추럴 클렌징솝 EXO 기획세트'를 한정판으로 출시했다.

생크림처럼 쫀쫀하고 풍성한 거품이 모공 속 찌꺼기는 물론 각질까지 부드럽게 제거하고, 허브오일이 함유돼 있어 세안 후에도 피부 당김 없이 촉촉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얼굴뿐 아니라 보디에도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아이템으로, 라벤더향·아카시아·그린티 등 각 성분별로 기능을 강화하고 자연의 향기를 담아 6종으로 구성했다.

빅토리아 코리아가 수입한 '스웨덴 에그팩'은 대표적인 '모공 관리 비누'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스웨덴 전통 미용 요법인 달걀 흰자팩을 기초로 만들어진 스웨덴 에그팩은 모공 수축 효과와 피지 개선에 탁월한 것이 특징이다. 업계 관계자는 "날이 더워지면서 늘어진 모공과 번들거림으로 고민하는 고객들이 많이 찾는다"며 "2차 세안 시 사용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지원기자 pjw@metroseoul.co.kr

여름철 피부 고민 "세안 신경 쓴다"

저자극 클렌저와 미지근한 물로 씻어야

20~30대 한국 여성 과반수 이상이 여름철 피부 고민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세안에 더욱 신경 쓴다고 답했다.

필립스코리아(대표 도미니크 오)는 온라인 설문조사 기관인 모픈서베이를 통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20~30대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여성 여름 휴가철 피부 고민과 해결방법' 조사를 실시해 이같이 나타났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77.8%가 여름철 피부 트러블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주로 겪는 피부 고민에는 '피지 분비·메이크업 노폐물로 인한 트러블'이 1위(423명)를 차지했다. '자외선으로 인한 기미·주근깨'(313명), '높은 온도에 늘어난 모공'(235명) 순이었다. 특히 20대는 '피지 분비 및 메이크업 노폐물로 인한 트러블'이라고 답한 비율이 높고, 30대는 '높은 온도로 늘어난 모공'과 '자외선으로 인한 기미·주근깨' 비율이 많았다.

여름철 피부 고민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는 '세안에 더욱 신경 쓴다'는 비율이 58.1%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20.9%), '피부과 혹은 에스테틱 방문'(10.5%), '고가의 기능성 화장품 사용'(6.5%)이 뒤를 이었다.

여의도 오라클 피부과의 정진영 원장은 "여름철엔 높아진 기온으로 땀과 피지 분비가 많아져 피부 노폐물이 잘 쌓이기 때문에 피부 트러블은 물론 모공이 넓어지기 쉽다"며 "평소 아침·저녁으로 저자극 클렌저를 사용해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고 피지 분비가 많고 메이크업 잔여물 등이 끼기 쉬운 코 주변 등 손이 닿기 어려운 부분까지 꼼꼼히 세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장혜진기자

'스페이스 다이어트' 가구·가전 눈길

중소형 아파트 좁은 공간에도 활용 가능

최근 인구 구성의 변화, 핵가족화의 심화 등으로 1인 가구·소가구가 증가하면서 중소형 평형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에 좁은 공간을 더욱 멋스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스페이스 다이어트(Space Diet)' 가구와 가전이 각광받고 있다.

넓지 않은 거실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능은 물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효과까지 있는 일석이조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독일 가구 브랜드 코이노(Komor)의 다이닝 소파 '브룬스'는 소파의 개념을 식공간에 적용한 독특한 제품으로 L자형, 그리고 벤치형 소파에 테이블이 결합돼 있다. 식사나 티 타임을 즐길 때는 식탁으로서 기능하고,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눌 때는 소파로 사용하면 된다.

뱅앤올룹슨의 '베오릿14'는 웅장하고 깊이 있는 음향을 제공하면서도 지름 약 16cm의 작은 크기의 휴대 스피커를 갖춰 공간 활용에 유용하다. 세련된 디자인의 스탠드형으로 공간을 크게 차지하지 않으며 공간 분위기에 따라 스피커를 다양한 조합으로 배치할 수 있다.

주방에 조리공간이 좁으면 요리 시 불편하고 피로감이 커진다. 때문에 작은 주방일수록 가전 제품이 공간을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기능 제품을 구비하는 것이 좋다. 켄우드의 '케이믹스 키친머신'은 요리와 베이킹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반죽기·거품기·혼합기의 기능을 갖춘 멀티 주방 아이템으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다. 또 감각적인 컬러와 디자인으로 주방 인테리어에도 제격이다.

소형 아파트의 경우 다용도실의 알찬 활용 여부가 집안 정리정돈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공간 효율에 유리한 청소기와 세탁기를 두고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일렉트로룩스전자의 파워프로듀오는 진공청소기 라인에 탑재됐던 '싸이클론 기술'을 구현해 일반 유선청소기와 동급의 흡입력을 제공하는 두얼원(2-in-1) 무선청소기다. 별도의 고정장치 없이 자체적으로 세워둘 수 있고 청소기 헤드와 스틱을 잇는 연결부위는 협소한 공간에서도 좌우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제품의 두께를 29.2cm로 줄여 세계 최초로 벽에 거는 방식을 채택한 동부대우전자의 벽걸이 드럼세탁기 '미니'는 크기를 기존 15kg 드럼세탁기의 1/6 수준인 550×600×292mm 수준으로 줄여 공간 효율성을 높였다.

/장혜진기자 hjj@metroseoul.co.kr

크레용팝 동생은 잊어라

엔니 그룹 크레용팝의 그림자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다혜(22) 유정(22) 지나(22) 단비(20)로 구성된 걸그룹 단발머리는 데뷔곡 '노웨이'의 무대에서 섹시함과 귀여움으로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스트릿댄스와 독특한 콘셉트로 가요계를 강타했던 크레용팝과는 차별화된 색을 발산했다. 때로는 여린 한 섹시함으로 때로는 귀여운 동생같은 단발머리를 만났다

“신인상보다 남자 로망 바꿀 것 한 가지 틀에 박힌 콘셉트 탈피”

◆ 섹시 큐티 조합

단발머리는 데뷔곡 '노웨이'의 무대에서 바니걸을 연상케하는 섹시한 토끼 머리띠를 착용하고 등장해 주목받았다. 여성스러운 매력이 엿보였다. 반면 '왜이래'는 통통 튀는 음악으로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크레용팝의 동생을 기대했다면 다소 실망할 수 있지만 예상을 뒤엎는 반전 매력으로 무대를 빛냈다. "크레용팝 선배님들의 여동생 그룹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은 건 사실이에요. 인지도를 쌓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됐죠. 감사하는 마음이 큰 만큼 우리가 잘못하면 선배님들에게 폐가 되지 않을까하는 부담감도 생겼어요. 실수도 많았지만 즐겁게 데뷔무대를 마쳐서 좋아요. 못보여준게 많은데 지금 단발머리에 만족하는 분들은 뭘이 아니예요.(웃음)"

상큼한 듯 발랄한 듯 섹시한 무대를 선보인 단발머리는 "우리의 매력을 꼽으라면 '하이브리드'라는 단어로 함축할 수 있다. 한 무대에서 두가지 매력을 보이는 것"이라며 "세련되고 섹시한 노래에 귀여운 표정과 안무를 매치했다. 다만 음악방송에서 원곡 무대를 한번 밖에 보여주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단발머리'에 이어 '왜이래'로 후속 활동에 나선 이들은 발랄하고 깜찍한 귀여운 여동생 같은 반전 이미지를 선보였다.

이들은 "데뷔곡 '노웨이'를 통해서 섹시함을 보여줬다면 이번 '왜이래' 섬머 에디션 버전은 단발머리 특유의 상큼함과 풋풋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는곳 달라도 꿈은 하나

학창시절을 보낸 곳은 모두 달랐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은 똑같았다. 단비는 전라남도 나주, 유정은 충청북도 청주, 지나는 인천, 다혜는 필리핀과 미국에서 청소년기를 보냈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남다른 투상과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다. 유정은 "초등학교 6학년 수업 시간에 따돌디 걸려서 혼자 일어나서 노래를 불렀다. 쟁나라 선배님의 '나도 여자랍니다'를 불렀는데 설레고 짜릿했다. 그때부터 가수의 꿈을 키웠다"고 밝혔다. 고등학생 때 KBS '전국노래자랑' 나주편에 출연해 장려상을 받은 단비는 "개인적으로 낯을 많이 가리는 편인데 중학교 수련회에서 장기자랑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무대에서 몸인 해제된 느낌을 받았다"며 "고등학교를 공주에서 다니면서 본격적으로 음악을 배웠고 우연치 않은 기회로 현재 소속사에 들어와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초·중학생 시절에 탁구 선수로 활동했던 지나는 "중학교 1학년때 성장드라마 '반올림' 길거리 캐스팅 받았지만 당시 갑자기 무서워서 포기했다. 그러나 숭어리가 남았다"며 "연말 연기대상을 보는데 백지영 선배님이 배우들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을 보고 멋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때부터 음악공부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필리핀과 미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다혜는 "부모님이 공부해서 대학을 가는 게 평단하고 좋다면서 중3 졸업하고 필리핀으로 보내버렸다. 하지만 거기서도 마트나 백화점에 있는 노래방 기계에서 팝송을 불렀다"며 "미국 시애틀에 유학갔다가 MBC '위대한 탄생' LA 오디션에 합격했다. 아쉽게도 뉴욕에서 떨어졌지만 내 열정을 보고 부모님도 뜻을 받아들이셨다"고 밝혔다.

◆ 4人4色

남자들의 '긴 생머리' 로망을 '단발머리'로 바꾸는 것이 목표 중 하나라는 당찬 그녀들

유정은 "저의 그룹 팀명의 뜻이 여자의 변화를 상징 하듯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서 대중들이 '단발머리'를 들었을때 딱 떠오르는 그룹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것이든 운동이든 먹는 것이든 다방면으로 쉬워 1순위가 되는 그룹이 되면 더욱 좋을 것 같다"며 "디제 같은 경우에는 19금 토크를 잘 한다"고 귀띔했다.

차별화된 공연도 계획하고 있었다. 단비는 "레이디 가가가 롤모델이고 틈틈이 외국 아티스트 콘서트 영상을 본다"며 "규모가 큰 콘서트가 많은데 우리도 차별화된 콘셉트로 공연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지를 비쳤다.

단발머리는 음악적인 부분에선 틀에 갇힌 그룹이 아닌 여러 음악 장르를 섭렵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힙합 장르도 관심이 높고 다양한 음악을 하고 싶다"며 "한 가지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저희만의 색깔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단발머리에게 올해 활동 목표에 대해 묻자 욕심 있는 신인답게 목표가 3가지나 있음을 밝히며 "첫 번째는 남자들의 로망인 '긴 생머리'를 '단발머리'로 바꾸는 것, 두 번째는 포털사이트에 단발머리를 검색할 경우 미용관련 상품이 나오는 것, 마지막으로 신인상을 타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특히 모든 신인들의 로망인 연말 시상식의 '신인상'에 대해 멤버들은 "신인 때 한 번밖에 받지 못하는 상이니 더욱 받고 싶다. 올해 못받으면 내년에 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성은기자 yes@metroseoul.co.kr

사진/김민 루이엔터테인먼트 디자인/최승미

'YG 사활 건 프로젝트' 위너 출격

초대형 론칭쇼·메머드급 앨범·만능 엔터테이너 목표

YG엔터테인먼트가 사활을 건 프로젝트로 신인그룹 위너(김진우·강승윤·송민호·이승훈·남태현 사진)를 선보였다.

위너는 YG가 빅뱅 이후 무려 9년 만에 데뷔시키는 남성 그룹이다. 신인 그룹으로는 2NE1 이후 5년 만이다. 특히 SM엔터테인먼트와 함께 2대 연예기획사로 군림하고 있는 YG가 2011년 11월 상장 이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아이돌 그룹이라는 점에서 위너는 전사적인 지지를 받고 데뷔를 준비했다.

위너는 6일 서울 여의도의 한 특급 호텔에서 초대형 론칭 행사를 열고 데뷔를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8월 보이 그룹을 선발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 '후 이즈 넥스트: 윈'으로 얼굴을 알린 지 1년 만이다.

12일 데뷔 앨범 '2014 S/S'의 음원을 공개하고 15일 오프라인에 발매한다. 앨범의 규모나 내용 면에서도 다른 신인과 차별화를 시도했다. 10곡이 담긴 정규앨범을 들고 나왔고, 전곡의 작사·작곡에 멤버들이 참여했다. 탄탄한 프로듀서진이 포진한 YG에서 아이돌 그룹 앨범으로는 파격적인 제작 방식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일본에서 열린 빅뱅의 6대 돔투어의 오프닝 무대에 서며 실전 경험을 탄탄히 쌓았다. 웬만한 기수들은 평생 한 번 경험하기 힘든 무대를 데뷔도 하기 전에 겪었다. 또 데뷔 직후인 15일 잠실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YG패밀리 콘서트'에서 수만 명의 관객 앞에서 첫 공식 무대를 연다.

송민호는 "데뷔가 밀리며 힘들기도 했지만 정말 좋은 경험도 많이 했다. 선배님들 무대에 같이 서면서 정말 많은 경험을 한 것 같다. 모두가 만족할만한 곡이 나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다"고 데뷔를 앞둔 벅찬 감정을 나타냈다.

강승윤은 "빅뱅 선배님들은 힙합이 기반이지만 다양한 스타일로 거의 모든 장르를 섭렵했다. 그 때문에 다른 무언가 찾기가 힘들었다"면서 "굳이 다르게 해야한다기보다 저희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드리면 빅뱅과는 다른 위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YG의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는 소속 가수의 쇼케이스 현장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긴장되는 마음과 위너에 대한 자신감을 동시에 나타냈다. 양 대표는 "형들(선배 그룹)의 옷을 그대로 입게 하면 안되겠다는 고민으로 앨범을 준비했다"면서 "멤버들보다 더 긴장되는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번 앨범은 12라운드 권투 경기에 비유하면 1라운드와도 같다. 끝까지 지켜봐달라"면서 "앞으로 위너 멤버들에게는 연기와 예능 등 다양한 길을 열어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위너는 데뷔 한 달도 채 안 된 시점인 다음달 10일 '2014 S/S-재팬 콜렉션'을 발표하고 일본에 데뷔한다. 또 일본 투어 '위너 1st 재팬 투어 2014'도 진행한다.

앨범 발매와 함께 팬클럽 '이너서클(INNERCIRCLE)'도 출범한다. 다국적 팬을 위해 한국, 일본, 글로벌(영어) 버전으로 팬 사이트가 마련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suns@metroseoul.co.kr

JYJ 한국 앨범으로 오리콘 2위

일본 정식 발매 없이 한 주 1만7000장 팔려

그룹 JYJ(사진)가 국내에 발표한 한국어 앨범으로 일본 오리콘 차트 2위를 차지했다.

JYJ가 지난달 30일 발표한 국내 정규 2집 '저스트 어스'는 오리콘 8월 첫째 주 앨범 주간차트 2위에 올랐다. 이 앨범은 1주일간 1만6866장이 팔려 소녀시대의 일본 베스트 앨범 '더 베스트'(3만1477장)의 뒤를 이었다.

JYJ의 소속사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는 "일본에서 정식 발매한 앨범이 아닌 한국어 앨범으로 오리콘 차트에 올라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며 "이번 기록은 아직까지 일본 활동에 제약이 있는 JYJ가 일본에서 여전히 높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입증한 셈"이라고 전했다.

이어 "관계자들 역시 일본에서의 정식 발매 앨범이 아니라 한국어 앨범으로 오리콘 차트 순위권에 오른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JYJ는 정규 2집 발매 기념 아시아투어의 시작인 '더 리턴 오브 더 킹' 서울 공연을 9일 잠실주경기장에서 개최한다. 이 공연에는 한 회에만 4만여명의 관객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된다. /유순호기자

시크릿·레이디스코드 차별화 전략

섹시 콘셉트 일색 탈피

걸그룹 시크릿(위 사진)과 레이디스 코드(아래)가 톡톡튀는 매력으로 돌아왔다.

완전체로 돌아온 시크릿은 7일 신곡 '아임 인 러브'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뮤비 티저 영상에서 시크릿은 청순함과 섹시함을 담아 파격적인 변신을 예고했다. 이 영상은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듯 처연하고 슬픈 표정을 짓는 시크릿 멤버들의 표정으로 시작된다. 특히 최근 배우로 거듭난 한선화는 눈물을 흘리며 애절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나 아티저 중반부부터 네 멤버들은 과감하고 파격적인 의상으로 갈아입은 후 180도 변신, 각선미를 과시하거나 풍만한 볼륨감을 자랑하며 시크하고 섹시한 매력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도입부의 잔잔한 멜로디와 달리 중반부의 경쾌한 멜로디는 이번 신곡의 반전 콘셉트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시크릿이 반전 매력을 예고했다면 레이디스 코드는 신나는 펑키곡 '키스 키스'로 돌아왔다. 소녀들의 로망인 '키스'를 소재로 해 레이디스 코드만의 발랄한 섹시를 더했다. '키스 키스'는 히트 작곡가 슈퍼창따이가 만든 곡으로 경쾌한 멜로디와 강렬한 리듬이 특징인 곡이다.

레이디스코드는 "전기에 감전된 기분이었어 (그럴걸) 짜릿한 기분 좋아" "아직 난 안돼요 아직 난 안돼요 아직 난 아직 난" "솔직히 말해 너 입 냄새 좀 나" 등 발칙한 노랫말로 상상 속의 키스를 담아냈다. 브릿지 파트는 뽀뽀 소리와 함께 장제 모를 남성의 음성이 흘러나오며 컴백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레이디스코드의 톡톡 튀는 군무도 볼거리다. 이들은 8일 KBS 2 '뮤직뱅크'에 출연하며 본격적인 방송활동을 시작한다.

/장병호기자 ps@

모두를 위하여 하나가 되었다
ALL FOR ONE, ONE FOR ALL
tvN 일요드라마
삼총사
조선낭만활극
명품 드라마 <나인>의 콤비 김병수 연출 / 송재정 극본
8월 17일 [일] 첫 방송! tvN

광희 규현

tvN '꽃보다 청춘' 라오스 팀의 유연석, 바로, 손호준

개그맨 못지않은 '예능돌' 전성시대

제국의아이들 광희·슈퍼주니어 규현·B1A4 바로

과거 1세대 아이돌의 경우 멤버 전원이 함께 TV 쇼에 등장해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하며 그룹을 알렸다면 최근 아이돌 그룹은 각개전투를 택했다. 가요시장에 아이돌그룹이 포화인 상태에서 멤버를 연기돌·예능돌·뮤지컬돌 등으로 나눠 각자의 매력을 알리는 것이 그룹 알리기에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개그맨을 압도하는 입담으로 예능돌(예능+아이돌) 전성시대를 이끄는 아이돌이 눈길을 끌고있다.

지난 2010년 제국의 아이들로 데뷔한 광희는 MBC '세바퀴'에 등장해 타고난 예능 감각과 거침없는 입담으로 새로운 예능돌의 탄생을 알렸다. 이후 광희는 각종 쇼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해 제국의 아이들을 알리는데 일조했다. 그는 특히 성형 사실과 부족한 노래 실력을 숨김없이 보여주며 웃음을 유발, 전에 없던 새로운 아이돌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 현재 광희는 올리브TV '올리브쇼', E채널 '연애전담포', JTBC '보스와의 동침' 등 다수의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활약하며 예능돌 1인자로 자리매김했다.

광희가 '김구라 잡는 아이돌'이라면 슈퍼주니어의 규현은 김구라와 찰떡호흡을 자랑하는 아이돌이다.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의 DJ로 활동 중인 규현은 김국진·윤종신·김구라 등 쟁쟁한 MC들 사이에서 당당히 제 몫을 해내고 있다. 규현의 강점은 날카로움과 익살스러움이 공존한다는 것이다. '라디오스타' 초대 손님의 멘트가 부적절하거나 방송 흐름에 어긋날 때면 규현은 이를 결코 놓치지 않는다. 그러나 상대의 기분을 절대 상하지 않게 재밌는 상황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규현의 가장 큰 매력이다.

지난해 tvN '응답하라 1994'(이하 '응사')로 연기에 도전한 B1A4의 바로도 최근 예능돌 대열에 합류했다.

바로는 '응사' 이후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 MBC '무한도전' 브라질 월드컵 특집 당시 응원단으로 출연해 본격적인 예능 활동을 시작했다. 그는 즉석에서 응원 안무를 추가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며 '예능하는 아이돌'다운 면모를 과시했다. 바로는 최근 '응사'에서 호흡을 맞췄던 배우 유연석·손호준과 함께 tvN 배낭여행 프로젝트 '꽃보다 청춘'에 출연하며 지새대 예능돌 자리를 노리고 있다. /김민지기자 kmsKim@metroseoul.co.kr

로이킴 패션 디자이너 변신

가수 로이킴(사진)이 디자이너에 도전했다.

세정에서 전개하는 TD 캐주얼 '헤리토리'가 전속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로이킴과 손잡고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선보인다. 로이킴은 이번 작업에서 헤리토리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본인만의 감성과 디자인적 감각을 녹인 그림을 선보여 특별한 콜라보레이션 제품을 탄생시켰다.

헤리토리 X 로이킴 콜라보레이션 제품은 반 소매의 반팔 라운드 티셔츠 3종과 피케셔츠 2종, 체크셔츠 3종, 데님 1종 등 총 9종으로 구성됐다. 이는 평소 모던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선호하는 로이킴의 취향이 고스란히 반영돼 보노톤이 주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또 로이킴은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아 사비에 참가한 희망을 불어넣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했다.

헤리토리 관계자는 "로이킴은 뛰어난 디자인 감각과 패션 센스는 물론 개인 SNS를 통한 헤리토리 화보 촬영현장을 깜짝 공개하고 팬들과의 활발한 소통 등으로 브랜드에 대한 애정이 커 이번 작업에서도 퀄리티 높은 콜라보레이션 제품이 탄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성훈기자 [illegible]

'무한도전' 9년 사진전

MBC '무한도전'이 9년 역사를 사진으로 한 자리에 모았다.

MBC는 "상암동 신사옥 이전 기념으로 '무한도전 The legend'展 22일부터 9월 5일까지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신사옥 미디어센터 1층에서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 무도 사진전과 차별화를 위해 '무한도전' 초기부터 2013년 촬영 현장 사진 중 대표적인 250여 점의 사진을 전시할 예정이다.

MBC 관계자는 "이번 사진전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무한도전'이 9년간 어떤 도전을 해왔는지 다시금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이고, 둘째는 '무한도전' 멤버들의 예전 모습과 최근 모습을 비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지민기자

'예능 블루칩' 나나 중국 '노크'

한국 연예인 최초 고정출연

섹시발랄한 매력으로 예능에서 활약을 불어넣고 있는 걸그룹 오렌지카라멜 나나(사진)가 중국 예능 접수에 나선다.

7일 나나의 소속사 플레디스는 "나나가 한국 연예인 최초로 중국 상해동방위성TV 예능프로그램 '여신의 패션'에 고정 출연한다. 나나는 모델 출신 걸그룹다운 패션 감각을 선보이며 중국 연예인들과 경쟁을 벌이게 된다"고 밝혔다.

'여신의 패션'은 6명의 스타와 디자이너가 팀을 이루고 매 회 미션을 받아 경쟁하는 패션리얼리티 프로그램이다. 나나는 한국 디자이너 최범석과 한 팀을 이뤘다. 중국 내 스타 배우로 꼽히는 자칭원, 상원지에, 예쉬인, 장신위, 모샤오지 등과 서바이벌 경쟁에 나선다.

'여신의 패션' 제작진은 최근 프로그램의 공식 웨이보에 나나의 촬영장 사진을 공개해 화제가 된 바 있다. 공개된 사진 속 나나는 진지한 표정으로 재봉틀을 돌리며 직접 바느질을 하고 있어 궁금증을 자아냈다.

한편 나나가 출연하는 '여신의 패션'은 오는 23일 중국 상해동방위성TV를 통해 첫 방송 된다. /황성운기자

작지만 알찬 영화 '눈길'

대작홍수 속 해외 화제작 잇따라 개봉

영화 '매직 인 더 문라이트'

영화 '안녕 헤이즐'

영화 '비긴 어게인'

연이은 대작들의 개봉으로 극장가가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그러나 보다 다양한 작품들을 만나고 싶은 영화 팬에게는 대작들만 즐비한 극장이 마냥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작지만 알찬 영화들이 개봉을 준비 중이다. 치열한 흥행 경쟁에 숨통을 트여줄 작품들이다.

오는 13일 개봉하는 '안녕, 헤이즐'은 산소통을 캐리어처럼 끌고 다니는 헤이즐(쉐일린 우들리)과 미소가 매력적인 어거스터스(안셀 엘고트)가 첫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예측불허의 로맨스를 그린 영화다. 존 그린의 베스트셀러 소설 '잘못은 우리 별에 있어'를 스크린에 옮겼다.

지난 6월 북미 지역에서 먼저 개봉한 영화는 '엣지 오브 투모로우', '말레피센트' 등 쟁쟁한 블록버스터들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 현재까지 제작비 대비 10배가 넘는 1억2352만 달러의 흥행 수익을 기록 중이다. 독특한 캐릭터와 반짝이는 재치와 유머를 담은 스토리, 그리고 할리우드 신예 쉐일린 우들리와 안셀 엘고트의 탄탄한 연기 호흡이 좋은 평가를 얻었다.

영화 '원스'의 존 카니 감독의 신작 '비긴 어게인'도 같은 날인 13일 개봉한다. 과거 잘 나가는 음반 프로듀서였으나 지금은 명성을 잃은 댄(마크 러팔로)과 록 스타가 돼버린 남자친구와 이별하게 된 싱어송라이터 그레타(키이라 나이틀리)가 같이 데모 음반을 만들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렸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음악으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의 진심을 진솔하게 그렸다. 센트럴파크,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 차이나타운 등 뉴욕 곳곳의 풍경을 감성적인 음악과 함께 담았다. 키이라 나이틀리는 가수 못지않은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이며, 마룬5의 보컬 애덤 리바인의 연기 도전도 인상적이다.

20일에는 '미드나잇 인 파리', '블루 재스민' 등으로 최근 국내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디 앨런 감독의 신작 '매직 인 더 문라이트'가 개봉한다. 1920년대 남부 프랑스를 배경으로 유럽 최고의 마술사 스탠리(콜린 퍼스)와 엉뚱한 심령술사 소피(엠마 스톤)의 로맨스를 그렸다.

특히 '매직 인 더 문라이트'는 '미드나잇 인 파리'에 이어 우디 앨런 감독이 다시금 프랑스를 무대로 삼아 관심이 모아진다. 제작진은 철저한 고증을 통해 1920년대 남부 프랑스의 낭만과 화려함을 완벽하게 재현했다. 로맨틱 가이로 돌아온 콜린 퍼스, 그리고 우디 앨런의 새로운 뮤즈로 선택된 엠마 스톤의 연기 호흡도 기대 포인트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줄기세포 스캔들 스크린으로

임순례 감독 신작 '제보자' 10월 공개

임순례 감독의 신작 '제보자'가 오는 10월 개봉을 확정하고 티저 포스터와 스틸을 공개했다.

'제보자'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줄기세포 스캔들에서 모티브를 얻은 영화. 한 통의 제보 전화를 통해 취재에 나선 시사 프로그램 PD가 대한민국을 뒤흔들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이번 작품에서 주인공인 시사 프로그램 PD 윤민철 역은 박해일(큰 사진)이 맡아 열연했다. 줄기세포 복제 연구소의 가장 주목 받는 연구원이었으나 양심 때문에 충격적인 제보를 하는 심민호는 유연석(작은 왼쪽 사진)이 연기했다. 여기에 이경영(오른쪽)은 전 세계를 주목하게 한 인간배아줄기세포 복제 논문의 조작 스캔들에 휘말리게 되는 이장환 박사 역을 맡았다.

임순례 감독은 그 동안 '와이키키 브라더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남쪽으로 튀어' 등 사회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과 따뜻한 시선을 담은 작품들을 만들어왔다. '제보자'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리얼리티와 긴장감을 살린 영화로 기대가 모아진다. /장병호기자

정소민·이유비·민효린 '스물'

김우빈·이준호·강하늘과 20대 청춘 연가

김우빈, 이준호, 강하늘의 캐스팅으로 화제가 된 영화 '스물'(가제, 감독 이병헌)이 정소민(사진), 이유비, 민효린, 정주연 등 여배우 캐스팅까지 확정했다.

'스물'은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누구도 사랑할 수 있으며 무한대의 가능성이 열리는 나이 스물을 맞이한 혈기 왕성한 세 친구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영화. '힘내세요, 병헌씨'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이병헌 감독의 상업영화 데뷔작이다.

이번 작품에서 정소민은 바람둥이 백수 치호(김우빈)와 마치 포스트잇처럼 헤어짐과 만남을 반복하는 명문대생 소민 역을 맡았다. 이유비는 새내기 대학생 경재(강하늘)의 여동생이자 만화가를 꿈꾸는 아르바이트생 동우(이준호)에게 끊임없이 대시하는 소희를 연기한다.

또한 경재를 들었다 놨다 하는 신비로운 매력의 선배 진주 역은 민효린이 맡았다. 치호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치명적 은혜 역에는 신예 정주연이 낙점됐다.

20대 청춘들의 이야기를 유쾌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담아낼 '스물'은 지난달 말 크랭크인했다. 내년 상반기 중 개봉 예정이다. /장병호기자

'해적' 개봉 첫 날 27만명… '선전'

'베를린' '더 테러 라이브' 뛰어넘는 성적

영화 '해적: 바다로 간 산적'(이하 '해적', 감독 이석훈)이 개봉 첫 날 27만 관객을 동원하며 '명량'의 기세 속에서도 선전을 보였다.

7일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해적'은 개봉 첫 날인 6일 하루 동안 전국 786개 스크린에서 3970회 상영돼 27만3103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누적 관객수는 30만5440명을 기록했다.

'해적'의 오프닝 스코어는 2013년 '7번방의 선물'과 함께 흥행을 이끈 '베를린'(27만3647명)과 지난해 여름 '설국열차'와 쌍끌이 흥행을 이어간 '더 테러 라이브'(21만5432명)의 기록을 압도하는 수치다. 좌석점유율에서도 '베를린'(32.1%)과 '더 테러 라이브'(30.1%)를 뛰어넘어 43.5%를 기록하고 있다.

'해적'은 조선 건국 보름을 앞두고 고래의 습격으로 국새가 사라지자 이를 찾기 위해 해적과 산적, 개국 세력이 모험에 나서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액션 어드벤처. 김남길, 손예진, 유해진, 이경영, 오달수, 설리, 이이경 등이 출연한다. /장병호기자

감독 1순위 판마르베이크

축구협회 공식 발표…1주 내 선임여부 결판

대한축구협회가 대표팀 차기 사령탑 1순위로 네덜란드 출신 베르트 판마르베이크(62·사진)와 협상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은 7일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결과가 나온 것은 없지만 판마르베이크 감독을 만나 한국 대표팀에 관심이 있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차기 대표팀 감독 후보로 외국인 세 명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히지 않은 이 위원장은 처음으로 판마르베이크 감독이 유력 후보임을 알렸다.

이 위원장은 5일 김동대 협회 부회장, 전한진 국제과장과 함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출국해 판마르베이크 감독을 만나고 왔다. 다른 두 명의 감독 후보는 만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지금으로서는 판마르베이크 감독의 최종 결심이 계약 성사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일단 하겠다고 결심하면 세부적인 내용은 충분히 조율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판마르베이크 감독 측은 1주일 내에 최종 의사를 전해줄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판마르베이크 감독이 대표팀 사령탑 자리를 수락할 경우 곧바로 계약을 진행해 9월 초로 예정된 A매치부터 그에게 팀을 맡길 계획이다. 만일 판마르베이크 감독이 거절 의사를 전하면 2~3순위 후보자와 협상할 예정이다.

판마르베이크 감독은 협회 기술위원회가 제시한 월드컵 예선 경험, 영어 구사, 즉시 계약 가능, 월드컵 본선 16강 이상 진출 경력 등의 기준에 모두 충족하는 지도자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네덜란드를 32년 만에 결승으로 이끌어 지도력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불과 2년 만에 평가는 극명하게 엇갈렸다. 네덜란드가 2012년 유럽선수권대회 조별예선에서 3전 전패로 탈락하면서 2016년 유럽선수권대회까지 이어질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클럽 감독으로는 네덜란드 페예노르트에 2001~2002시즌 유럽축구연맹(UEFA)컵 우승을 안겼고 2007~2008시즌 다시 페예노르트 감독으로 부임해 네덜란드축구협회컵 우승을 차지했다.

그러나 네덜란드 감독직에서 물러난 뒤인 2013년 독일 함부르크를 맡아 불안정한 경기력을 보이다가 올해 1~2월에 무려 5경기 연속으로 3골 이상씩을 얻어맞고 패배했다. 사상 첫 강등의 위기에 몰린 함부르크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 판마르베이크 감독을 경질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U-20 여자축구 대표팀 /연합뉴스

U-20 여자월드컵 잉글랜드에 1-1

축구 태극낭자들이 2014 국제축구연맹(FIFA) 20세 이하(U-20) 여자월드컵 첫 경기에서 승점 1을 올렸다.

정성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7일 캐나다 멍크턴의 멍크턴 스타디움에서 열린 C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잉글랜드와 1-1로 비겼다.

이날 경기 초반 분위기는 한국이 주도했다. 한국은 전반 15분 이소담(울산과학대)의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올렸다. 장슬기(강원도립대)가 페널티 박스 오른쪽을 파고들다 문전으로 올린 크로스가 잉글랜드 수비수 이비 애니언(버밍엄시티)의 손에 맞으며 핸드볼 파울이 선언됐다. 키커로 나선 이소담은 골 그물 왼쪽 구석으로 공을 꽂아 한국에 선취점을 안겼다.

기세가 살아난 한국은 이금민(울산과학대), 장슬기가 잇달아 위협적인 활약을 보였으나 골로 연결하진 못했다. 전반 35분엔 최유리(울산과학대)의 왼발 슛이 골대 오른쪽으로 살짝 벗어났고 1분 뒤엔 김혜영(울산과학대)의 헤딩 시도가 골대의 외연을 맞아 아쉬움을 삼켰다.

그러나 후반전에는 실점에 이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며 어렵사리 무승부를 거뒀다. 첫 경기에서 승점 1을 기록한 한국은 잉글랜드와 더불어 조 1위로 나섰다. C조 또 다른 국가인 나이지리아와 멕시코는 아직 경기를 치르지 않았다. 한국은 10일 나이지리아와 2차전에 나선다.

/정성훈기자 sjsj1633

송가연 매력포인트 '허벅지'

데뷔전 앞두고 영상 인터뷰…이상형은 공유

미녀파이터 송가연(20·사진)이 자신의 이상형으로 공유를 꼽았다.

로드 FC 017 출전을 앞두고 진행된 주관 방송사 수퍼액션과의 영상 인터뷰에서 송가연은 특유의 '다나까' 말투로 공유에게 영상편지를 보내 눈길을 끌었다. 로드 FC 017은 17일 오후 8시에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다.

송가연은 영상 인터뷰에서 이상형으로 공유를 지목하며 매력 포인트로 외모를 꼽았다. 송가연은 "연기 잘 보고 있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등 '다' 또는 '까'로 끝나는 군대식 말투로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 밖에도 송가연은 가장 자신 있는 신체부위로 허벅지를, '연기비결'은 진정미를 꼽는 등의 질문에 부끄러워하는 듯 하면서도 솔직한 생각을 밝혀 호응을 얻었다.

송가연은 이번 대회에서 일본의 여성 파이터 에미 야마모토(33)와 맞붙어 데뷔전을 치른다. 야마모토는 25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격투기를 시작해 아마추어 리그에서 4년 정도 활동한 강자다.

/정성준기자

류현진-최현 코리안 투타대결

류현진(27·로스앤젤레스 다저스·사진 왼쪽)이 8일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를 상대로 13승 사냥에 나서면서 상대팀 포수 최현(27·미국명 행크 콩거·오른쪽)과의 대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류현진은 8일 오전 11시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 에인절스타디움 오브 애너하임에서 열리는 에인절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이날 에인절스전에서 류현진은 한국계 타자와 맞대결할 수도 있다. 에인절스에서 뛰고 있는 한국계 미국인 포수인 최현이 선발 라인업에 든다면 말이다.

최현은 미국 헌팅턴비치고를 졸업하고 2006년 에인절스에 포수로 입단했다. 아버지가 미국인 이보부의 양자로 입적되면서 미국명은 행크 콩거이지만 100%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

한편 류현진은 이날 시즌 13승에 도전한다. 류현진의 맞대결 상대는 메이저리그 10년차 베테랑 왼손 투수 C.J 윌슨이다. 올 시즌 8승 7패에 평균자책점 4.74의 윌슨은 최근 10경기에서 평균자책점 7.21로 부진하고 있다.

/정성준기자

프로야구 전적 (8일)

■잠실

팀					R
넥센	011	000	003	00	5
두산	010	310	000	00	5

연장 11회 [illegible]

■문학

팀				R
KIA	000	110	000	2
SK	000	030	13X	7

[illegible]

■마산

팀				R
LG	000	013	230	9
NC	120	210	002	8

[illegible]